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성인의 애착 유형이 가해자 용서에 미치는 영향

- 자기 자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

최 다 정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성인의 애착 유형이 가해자 용서에 미치는 영향

- 자기 자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창 대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
최 다 정

최다정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1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학교폭력 사건 대처의 새로운 대안으로 회복적 정의 관점을 제시하며, 학교폭력 피해의 완전한 회복에는 가해자 용서 과정이 중요함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학교폭력 피해자의 가해자 용서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과 그 기제를 확인하고,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성인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개입과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애착 이론에 근거하여 불안 애착과 회피 애착 수준이 가해자 용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자기 자비가 이 경로를 매개할 것이라는 연구 가설과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성인 남녀 26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27.27세, 성별은 여자 185명(70.6%), 남자 75명(28.6%)이며, 복수 응답이 허용된 학교폭력 피해 경험 유형에 대해서는 언어폭력 140회, 따돌림 126회, 사이버폭력 77회 순으로 드러났다. 이후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위해 단일 요인 측정 도구의 문항 꾸러미를 제작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χ^2=220.873, CFI=.946, TLI=.927, RMSEA(90% CI)=.084, SRMR=.0591)하여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구조모형 검증 결과, 연구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양호(χ^2=222.359, CFI=.946, TLI=.928, RMSEA(90% CI)=.083, SRMR=.0572)했으나, 경로계수의 유의성 검증에서 불안 애착 수준이 가해자 용서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불안 애착에서 가해자 용서로 이어지는 직접 경로의 경로계수를 0으로 설정하여 완전 매개를 가정한 수정 모형을 제시하였다. 수정 모형 검증 결과, 모든 모형적합도 지수는 수정 모형보다 우수하여 이를 최종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부트스트래핑 기법으로 매개효과 경로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불안 애착 → 자기 자비→ 가해자 용서 경로에서 간접효과의 부트스트래핑 신뢰구간은 -.421~-.181, 회피 애착 → 자기 자비→ 가해자 용서 경로의 신뢰구간은 -.380~-.174로, 두 경우 모두 신뢰구간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종합하면, 불안 애착과 가해자 용서와의 관계에서는 자기 자비가 완전 매개효과를 가지지만, 회피 애착의 경우 자기 자비가 부분 매개효과만 가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논의에서는 불안 애착이 위협적인 사건을 접했을 때 과잉 활성화 전략을 사용하는 반면, 회피 애착은 비활성화 전략을 쓴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러한 상반된 연구 결과에 대해 해석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 피해 지원 대상, 방향, 개입의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 사건 대처에 있어 상담의 역할을 확대하고 애착 이론을 경험적으로 검증했다는 의의가 있다.

주요어 : 학교폭력, 학교폭력 피해, 불안 애착, 회피 애착, 가해자 용서, 자기 자비

학 번 : 2021-20848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문제 및 가설 ····· 10

Ⅱ. 이론적 배경 ····· 12
1. 학교폭력 ····· 12
1) 학교폭력의 개념 ····· 12
2) 사이버폭력의 구분 배경 ····· 14
3)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의 유형 ····· 15
2. 애착 이론 ····· 18
1) 불안·회피 애착 ····· 18
2) 성찰적 자기와 정신화 ····· 20
3. 용서와 자기 자비 ····· 22
1) 용서의 개념 ····· 22
2) 자기 자비의 개념 ····· 23

Ⅲ. 연구 방법 ····· 26
1. 연구 대상 ····· 26
1) 인구통계학적 정보 ····· 26
2) 학교폭력 피해 유형 및 빈도 ····· 28
2. 연구 도구 ····· 30
1) 학교폭력 피해 경험 ····· 30

2) 불안·회피 애착 ····· 31
3) 가해자 용서 ····· 33
4) 자기 자비 ····· 35
3. 데이터 분석 ····· 37

Ⅳ. 연구 결과 ····· 39
1. 학교폭력 피해 유형 빈도 분석 ····· 39
2. 주요 변인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 41
3. 측정모형 검증 ····· 42
4. 구조모형 검증 ····· 44
5. 매개효과 검증 ····· 48

Ⅴ. 논의 ····· 49

참고 문헌 ····· 55

부록 ····· 66

Abstract ····· 82

표 목 차

<표 1> 학교폭력의 유형 ····· 15
<표 2> 사이버폭력의 유형 ····· 17
<표 3>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나이, 학력) ····· 27
<표 4> 학교폭력 피해 유형 및 빈도 ····· 29
<표 5> 불안 애착 척도 ····· 32
<표 6> 회피 애착 척도 ····· 32
<표 7> 가해자 용서 척도 ····· 34
<표 8> 자기 자비 척도 ····· 36
<표 9> 주요 변인 기술통계 분석 결과 ····· 39
<표 10>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 41
<표 11> 측정모형의 모형적합도 지수 ····· 42
<표 12> 측정모형의 경로계수 ····· 43
<표 13> 연구 모형의 모형적합도 지수 ····· 44
<표 14> 연구 모형의 경로계수 ····· 45
<표 15> 수정 모형의 모형적합도 지수 비교 ····· 46
<표 16> 수정 모형의 경로계수 ····· 47
<표 17> 매개효과 검증 결과 ····· 48

그 림 목 차

[그림 1] 연구 모형 ····· 10
[그림 2] 연구 모형 검증 결과 ····· 44
[그림 3] 수정 모형 검증 결과 ····· 46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폭력(School bullying)은 학교와 관련된 괴롭힘 행위 전반을 말하며, 여기서 괴롭힘(bullying)이란 다른 개인에게 의도적으로 피해나 불편감을 주는 공격적인 행동으로, 의도성, 반복성 그리고 힘의 불균형이라는 세 요소를 포함하는 특성이 있다(Owelus, 2013). 학교폭력은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학교폭력 피해는 피해자에게 심리 내외적으로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1978-1997까지 20년간의 학교폭력 연구를 메타분석한 연구(Hawker & Boulton, 2000)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우울, 외로움, 불안과 강한 상관이 있었으며, 11편의 종단 연구 메타 분석(van Geel et al., 2021)에서도 학교폭력이 자살 생각 예측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342명의 미국 고등학생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Klomec et al., 2008)에서도 학교폭력이 우울 및 자살 생각과 강한 상관이 있음이 드러나는 등, 학교폭력 피해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여러 차례 확인되었다. 학교폭력 피해는 적응 및 중독 문제도 예측한다.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는 학업 성취와 학교 적응(Liu et al., 2018; Nakamoto & Schwartz, 2010)과 분명한 부적 상관이 있으며, 낮은 수업 집중력(Boulton et al., 2008)과 정서 부적응(Wu et al, 2015)과도 높은 상관을 나타낸다. 게다가 약물, 알코올 및 모바일 중독과도 높은 상관(Earnshaw et al., 2017; Liu et al., 2020; Sullivan et al., 2006)이 있는 등, 심리 내외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교폭력 피해가 오랫동안 중요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면서, 교육부에서도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처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1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즉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고, 두 사안을 별도의 절차로 진행하도록 한다. 이에 기반한 교육부(2022)에서 발간한 「2022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물리적으로 분리한 후 각 학생에게 구분되는 처치를 시행하도록 안내하며, 통상적으로 가해 학생에게는 처벌과 선도 중심의 교육이, 피해 학생에게는 보호와 상담 중심의 교육이 이뤄진다. 이러한 대처는 전통적인 사법적 대처에 근거한 것으로, 사건이 일어난 직후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처는 첫째, 성인이 된 학교폭력 피해자의 장기적인 회복에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점, 둘째,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단절시켜 영구적인 미해결 과제로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 대처의 한계에 주목하여 대안적인 관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먼저 학교폭력 피해의 영향은 성인이 되어서도 장기적으로 이어지지만, 학교폭력 피해의 지원은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기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DeLara(2019)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 따르면 피해 사실이 5년이 지났음에도 지속된 정신건강 문제, 신체적 증상 호소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폭력 피해자는 성인이 되어서도 관계적인 어려움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Nansel et al., 2003)는 경험적 연구 결과도 있다. 또한 아동 또는 청소년기의 학교폭력 피해는 성인기의 불안, 우울, 성격 장애, 중독 및 행동장애, 부정적 정신건강 전반에 영향(McDougall & Vaillancourt, 2015)을 주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최근 신경과학적 관점에서는 정서 조절의 어려움을 뇌의 구조적인 변형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활발하며(김창대, 2019), 이에 학교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신경과학적 종단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 학교폭력 피해자

682명을 대상으로 한 Quinlan과 연구진(2020)의 종단 연구에 따르면 피해 경험은 대뇌 기저핵(putamen) 일부가 완전히 자라지 못하게 만들어 성인이 된 후의 높은 불안을 예측했으며, Du Plessis와 연구진(2019)이 50명을 대상으로 한 종단 연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뇌의 복외측 전전두엽 피질(ventrolateral prefrontal cortex, vlPFC)를 축소하여 스트레스에 취약하게 만드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학교폭력 피해가 뇌 구조와 크기에 장기적이고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것이 드러났다. 이 외에도 학교폭력 피해자는 당뇨나 심장 질환의 가능성도 큰 것(Copeland et al., 2014; Hawkes, 2015)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록 학교폭력의 발생은 청소년기일지라도 학교폭력 피해의 영향은 성인이 되어서도 심각하게 남아있다. 그러나 현행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대처(교육부, 2022)는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국한하고 있어, 성인이 된 학교폭력 피해자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일반적인 트라우마 사건의 치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건과 단절되지 않고 접촉하여 충분히 회복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Levine, 2010). 이러한 관점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이러한 현재의 조치는 학교폭력 피해에서 완전히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전통적인 사법적 대처에 대한 대안적 움직임으로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 개념이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교정협회의 전문운영위원인 Barajas의 보고서(1997)에 따르면, 회복적 정의는 범죄와 처벌에 대하여 전통적인 관점과는 전혀 다른 이해와 철학으로부터 출발한다. 현재 사법제도가 제시하는 관점에서 사법은 '어떤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응당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응보적 관점으로 범죄를 규정하고 형벌을 구형한다. 하지만 회복적 정의 관점에서 범죄 사건은 특정 인물이나 집단 간 관계를 훼손한 것이고며, 그렇기에 '그 손상된 관계를 어떻게 온전히 회복할 것인가'에 더 주목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란 사건

발생을 회피하거나 매몰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에 대한 자책감을 줄이는 과정을 의미(Umbreit et al., 1994)한다. 특히, 가해자에 대한 용서는 피해자의 완전한 정서적 회복에 큰 도움이 되는 과정(Shapland, 2016)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용서는 비난받을 만한 위반자를 향한 피해자의 생각, 감정, 그리고/또는 행동의 친사회적 변화로, 상처를 준 특정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행동 반응, 감정, 판단 등을 중립 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성장 과정이다(Enright & Fitzgibbons, 2000). 다시 말해 가해자를 용서한 상태란 더는 가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행동, 감정, 인지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경험적 연구에서도 가해자 용서는 다양한 형태의 학대와 트라우마의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전략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성폭력 피해(Brown, 2003) 및 가정 폭력 피해(Reed & Enright, 2006)를 경험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용서는 각각 높은 안녕감, 높은 자존감과 낮은 우울 등을 보고하는 등, 피해자에게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되는 것 등이다.

학교폭력 피해자에게도 가해자 용서는 다양한 긍정적 변인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Watson과 연구진(2017)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자가 상황을 회피하거나 가해자에게 복수하는 방향보다 가해자를 용서하는 방향이 훨씬 더 적은 분노로 이어졌다. 이 외에도,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용서는 낮은 정신병리(van Rensburg & Raubenheimer, 2015), 높은 자존감, 낮은 복수 추구 및 낮은 사회적 불안(Flanagan et al., 2012), 낮은 자살 사고(Liu et al., 2013)로 이어지며, 학교폭력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호소하는 우울, 불안, 분노와 같은 심리적 부적응에 대해 가해자 용서는 강력한 조절변인(Barcaccia et al., 2018)이 되기도 한다. 이는 사이버폭력 피해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났는데, Quintana-Orts와 Rey(2018)의 연구에 따르면, 높은 가해자 용서 수준은 사이버폭력 피해 청소년에게는 높은 삶의 만족도를, 전통적인 학교폭력 피해자에게는 낮은 자살 사고를 예측하여 두 유형 모두에게 용서가 중요한 보호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가해자 용서가 일어나는 원리는 무엇일까? Takaku(2001)의 이론에 따르면, 위반자에 대한 용서의 중요한 기제는 다른 사람의 관점을 고려하고 이해하는 인지적 기술로 정의되는 '관점 수용(Perspective taking)'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상황에서 타인의 관점을 수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만, 반대로 기분이 상하고 상처를 받았을 때는 가해자의 입장까지 고려하는 것은 어렵다고 느낀다. 이에 대해 Takaku는 우리가 상처받은 순간, 그 경험에 꽤 강하게 몰두하여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내용에 매몰된다는 것에 주목한다. 이는 사건에 대해 메타-인지적으로 사고하기 어렵게 만들어, 상황을 온전히 현실로 경험하게 만든다(Leboiset al., 2015). 이런 식으로 상처받은 경험과 자신을 강하게 동일시할 때, 우리는 타인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는 주의적 공간이 줄어들 수 있으며(Leary & Diebels, 2017), 이로 인해 가해자에 대한 관점 수용을 덜 취하면서 용서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다(Karremanset al., 2020).

용서의 기제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면, 특정한 애착 유형이 용서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가정할 수도 있다. 애착은 가까운 대상에 느끼는 지속적이고 강렬한 정서적 유대로, 애착 유형은 관계 욕구 및 기대, 정서 조절 전략, 또한 사회적 행동에 대한 고정된 양상(Bowlby, 1982)을 말한다. 특히 애착 유형과 용서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애착 수준에서 가능해지는 '성찰적 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Fonagy(2018)에 따르면, 성찰적 태도란 자신의 신념과 감정이 단순히 표상적인 본질임을 인식하는 것, 다시 말해 경험의 즉시적 현실에서 뒤로 물러나 그것의 저변에 있는 정신상태의 관점에서 반응하는 태도이다. 이러한 성찰적 기능은 '정신화(mentalize)'로 설명하기도 한다. 성찰적 태도 또는 정신화 능력은 자신과 타인의 경험을 이해하고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여, 위협이 되는 사건을 겪더라도 이에 매몰되거나 압도당하지 않고 메타-인지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준다. 그러

나 일반적으로 불안정한 애착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성찰적 태도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Fonagy, 2018). 그렇다면, 학교폭력과 같이 중대한 사건을 겪었을 때 순간의 감정에 매몰되고 메타-인지적 사고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관점 수용 능력이 부족해져 용서가 어려워지는 기제와 매우 유사하기에, 불안정 애착 수준이 가해자 용서를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가정할 수 있다.

애착 유형의 구분은 선행연구마다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정-불안정 2차원으로 구분하거나, 불안정 애착을 다시 회피-양가-혼란으로 나누어 4차원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가해자 용서가 어려운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므로, 성인 애착 유형 중에서도 불안정 애착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에 Brennan과 동료들(1998)이 불안 애착과 회피 애착이라는 독립적인 두 개의 축으로 성인 애착의 유형을 구분한 것을 따르기로 한다. 애착 이론(Bowlby, 1982)에 따르면, 인간은 위협이나 고통에 직면했을 때 위안과 접촉에 대한 욕구가 본능적으로 내장되어 있는데, 불안형 애착과 회피형 애착은 이에 대응하는 기제가 다르다는 점에서 구분(Brennan et al., 1998)된다. 먼저, 불안형 애착은 이러한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애착 대상에 집착하는 과잉활성화(hyperactivating) 전략을 사용하고 정서 조절의 결여(under-regulation) 성향을 보인다. 반면, 회피형 애착은 이러한 욕구를 완전히 없앨 수 없는 대신, 방어하고 최대한 회피하고 무시하는 비활성화(deactivationg) 전략을 사용하며, 정서의 과잉 조절(overregulation)의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Hughes(2003) 등 일부 연구자에 따르면, 애착 수준은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고 이해하기보다 일련의 스펙트럼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연구 대상의 애착 유형을 불안 및 회피로 구분하여 별도의 분석을 진행하기보다, 각 애착 수준의 정도를 반영하여 분석하고자 했다. 이에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연구 방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채택하기로 한다.

실제 경험적 연구에서도 안정 애착이 용서를 정적 예측하고 불안정 애착은 부적으로 예측한다. 예를 들어, Lawler-Row와 연구진(2006)의 실험 연구에 따르면, 안정된 애착을 가진 경우 대인 배신 피해 상황에서 높은 가해자 용서 수준, 낮은 수축기 혈압과 높은 혈압 회복 수준을 보였다. 또한, 이혼 상대자에 대한 용서 여부는 안정 애착과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Yárnoz, 2009), HIV 감염 피해자의 불안정 애착 수준은 가해자 용서 수준과 높은 부적 상관(Martin et al., 201)을 보고했다. 그러나 불안정 애착과 용서의 부적 관계가 학교폭력 피해 맥락에서 논의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불안 애착과 회피 애착을 구분하지 않고 불안정 애착으로 묶어 함께 살펴본 경우가 대다수이다. 게다가불안 애착과 회피 애착을 구분한 일부 연구에서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보고되고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예로, 애착 유형과 용서의 관계를 다룬 27개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 연구(Hirst et al., 2019)에서는 불안 애착과 회피 애착 모두에 대해 가해자 용서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확인했다. 그러나, 불안 애착과 가해자 용서와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경험적 연구도 존재한다(Finkel,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안 및 회피 애착을 구분하여, 각 유형에 대해 가해자 용서에 미치는 경로가 유의한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더해, 만약 불안 애착과 회피 애착이 관점 수용을 어렵게 하여 가해자 용서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그 경로는 자기 자비가 매개하는 것으로 가정해볼 수 있다. 자기 자비(Self-compassion)란, 고통스러운 경험에서도 자신을 비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친절하게 돌보며 자신의 경험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Neff, 2003b)를 말한다. 자기 자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고통의 시기에 자신에 대한 깊은 동정심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것(Neff, 2011)에서 시작할 수 있다. 여기서 도움이 되는 조치란, 두렵고 힘들더라도 나에게 궁극적으로 좋은 일을 성찰하여 도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고통에 대해 과도하게 활성화되거나 회피하지 않고,

메타-인지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성찰하는 마음 챙김 자세가 기반(Adie et al., 2021)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불안 및 회피 애착의 낮은 성찰적 태도는 자기 자비를 어렵게 한다고 예측할 수 있고, 낮은 자기 자비가 가해자 용서를 어렵게 만드는 기제라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애착 유형이 자기 자비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한 선행연구는 다수 있다. 예를 들어 자기 자비 수준의 개인차의 잠재적 기원을 탐색한 실험연구(Pepping et al., 2015)에 따르면, 높은 부모거부 또는 과잉보호, 낮은 부모 온정에 대한 회상은 낮은 자기 자비를 예측하였으며, 이는 불안 애착이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안정된 애착 경험의 회상은 높은 자기 자비로 이어져, 유아기 경험과 애착이 자기 자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불안정 애착의 부정적인 영향을 자기 자비가 중재하는 기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예로, 불안 및 회피 애착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적 경로를 자기 자비가 중재하며(Raque-Bogdan et al., 2011), 불안 및 회피 애착이 우울감에 미치는 유의미한 부적 영향에 자기 자비의 간접효과가 확인(Brophy et al., 2020)되는 등이다. 이는 불안 및 회피 애착이 가해자 용서로 이어지는 부적 경로에서 자기 자비의 간접효과가 유의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정을 잘 뒷받침해준다.

자기 자비가 가해자 용서를 긍정적으로 예측한다는 경험적 연구도 중요한 배신을 경험한 성인(Mansfield et al., 2015), 학교생활 적응이 어려운 고등학생(Wibowo & Naini, 2021), 결혼한 커플(Fahimdanesh et al., 2013), 등 다양한 대상으로 확인되었다. 또, 자기 자비가 용서로 이어지는 기제를 탐색한 Skoda(2011)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자비 중 마음 챙김 요인이 가해자 용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낮은 자기 자비가 가해자 용서를 어렵게 하는 것이라는 가정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Sakiz와 Sariçam(2015)의 연구서는 거부 민감도가 높을수록 자기 자비가 낮고 용서도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불안정 애착의 거부 민감도가 높다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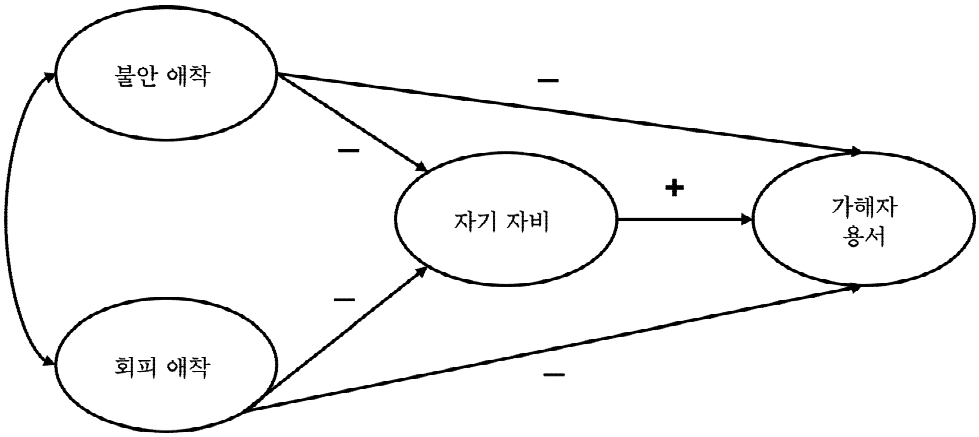
(Wallin, 2007)에서, 불안정 애착이 낮은 자기 자비를 매개하여 가해자 용서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는 본 연구의 가정을 지지한다.

학교폭력 피해 맥락에서 자기 자비가 논의된 선행연구도 많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대체로 낮은 자기 자비를 보이는데, 그 이유는 피해 경험에 대해 자기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경우가 많으며(Zăbavă, 2020), 피해 경험에 대해 자기 친절이 낮고 높은 수치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Gilbert & Irons, 2009)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대로 높은 자기 자비는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좋은 보호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다수의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자기 자비는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심리적 부적응을 완화하고(Játiva & Cerezo, 2014), 우울을 조절하며(Yaghoubi et al., 2021; Zhang et al., 2019), 모바일 중독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조절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Liu et al., 2020), 학교폭력 피해자의 정서적 안녕감에 자기 자비가 강한 예측 요인으로 검증되기도 했다(Múzquiz et al., 2022). 그러나 애착 유형, 자기 자비, 가해자 용서 각 변인의 관계 또는 매개효과에 대해 학교폭력 맥락에서 논의된 연구는 부족하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현재의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에는 성인 피해자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과 학교폭력 피해의 완전한 회복에는 가해자 용서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 등에 주목하였다. 이에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성인의 가해자 용서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과 그 기제를 확인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성인의 불안 및 회피 애착 수준이 가해자 용서를 어렵게 만드는지 확인하고, 그 경로를 자기 자비가 매개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및 가설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성인의 불안 애착·회피 애착과 가해자 용서 간의 직접 효과 및 자기 자비의 부분 매개 효과를 가정한 본 연구의 연구 모형([그림 1])과 이에 따른 연구 문제 및 가설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연구 문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성인의 불안 애착, 회피 애착, 자기 자비, 가해자 용서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 가설 1.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성인의 불안 애착은 가해자 용서에 부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연구 가설 2.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성인의 회피 애착은 가해자 용서에 부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연구 가설 3.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성인의 불안 애착은 자기 자비에 부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연구 가설 4.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성인의 회피 애착은 자기 자비에 부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연구 가설 5.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성인의 자기 자비는 가해자 용서에 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연구 가설 6.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성인의 불안 애착과 가해자 용서의 관계를 자기 자비가 부분 매개할 것이다.

연구 가설 7.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성인의 회피 애착과 가해자 용서의 관계를 자기 자비가 부분 매개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학교폭력

1) 학교폭력 개념

학교폭력 현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에 학교 의사인 Heinemann에 의해 스웨덴 대중에 “모빙(mobbing)“이라는 명칭이 소개되면서 처음 시작되었다(Heinemann, 1972). 모빙은 동물 집단이 다른 종의 동물을 집단으로 공격하는 것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던 용어로, 사회 심리학과 영어권 국가의 일반 대중 사이에서는 집단 또는 집단과 같은 비교적 큰 개인 집단을 일컫는 말로 꽤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집단은 우연히 형성되고, 느슨하게 조직되며, 짧은 시간 동안만 존재하는 특징이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이러한 집단의 구성원들은 대개 강한 감정을 경험하며, 집단의 행동과 반응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여겨진다. 모빙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때, Olweus는 학교 환경에서 발생한 또래 괴롭힘의 종류를 묘사하기 위해 윤리학/사회심리학에서 사용되는 모빙이라는 용어가 적합한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Olweus, 1978). 그는 모빙 개념에 함축된 함축적 함의가 학교폭력에 대한 부적절한 기대와 간과되는 문제의 특정 측면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특히 모빙 개념으로 인해 학교폭력이 비교적 균질한 집단에 의한 집단적 공격성의 문제처럼 여겨지는 것은 개별 구성원이나 소규모 집단들에 의한 상대적 기여를 모호하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소규모 집단이나 개인 대 개인 괴롭힘 형태의 학교폭력을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으며, 피해 학생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대다수의 일반 학생들을 자극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오랫동안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자리했다.

그러나 모빙은 꾸준히 스칸디나비아의 일상 언어에 사용되며 새로운 의미를 얻었으며, 느슨하게는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사람들에 의한 개인(혹은 집단)에 대한 비교적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을 암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영어권 및 다른 언어권에서는 이 용어가 학교폭력 현상의 묘사에 유용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했다. 그리고 이후 20여 년 동안 학교폭력의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리는 것은 불가능했고, 심지어 바람직하지도 않게 여겨졌다. 그러나 1983년 노르웨이 정부가 시작한 학교폭력 반대 운동(Olweus, 1993)과 관련하여 비교적 명확하고 제한적인 정의가 시급해졌다. 특히 이 캠페인의 중요한 부분은 설문지를 통해 전국적으로 가해 및 피해 상황을 조사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때 설문지에서는 학교폭력 피해를 한 학생이 한 명 이상의 다른 학생들의 부정적인 행동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 정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의도적인 부정적이거나 공격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학교폭력에 권력이나 힘의 불균형이 있다는 것을 더 명시하게 되면서, 현재의 Olweus의 학교폭력 정의에 이르게 되었다.

2) 사이버폭력의 구분 배경

학교폭력의 한 가지 하위 유형으로 분류되던 사이버폭력은 최근 들어 급격히 그 빈도가 늘어나고 기존의 전통적인 학교폭력과 다른 특징과 양상을 보이게 되면서 독자적인 형태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에 학교폭력을 전통적인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으로 구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David-Ferdon. 2007; Tokunaga, 2010)

전통적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사이버폭력 역시 학자마다 그 정의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이버폭력의 학교폭력의 연장선으로 바라보는 학자들은 고전적인 Owelus의 학교폭력 정의(2013)에 기반하여 사이버폭력 역시 반복성, 힘의 불균형 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폭력 형태라고 규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Wolak 등(2007)은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은 온라인 공간의 특수성에 의해 일부 전통적인 학교폭력과 다른 특성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새로운 정의를 제시하기를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학교폭력의 연장선에서 일어나는 사이버폭력은 cyberbullying으로 명명하지만 그렇지 않고 랜덤하게 익명으로 발생하는 사이버폭력은 ‘Online Harassment’라는 용어를 쓰자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정의와 마찬가지로 사이버폭력의 유형 역시 학자마다 또는 문화권마다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두경희 외, 2012). 특히 사이버폭력은 그 형태가 나날이 변화하고 세분화하는 경향이 있어, 합의된 척도를 찾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정여주, 신윤정, 2020). 이처럼 정의와 유형, 연구 도구 등 대해 일관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것은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의 공통적인 특성이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부의 가장 최신의 공식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그 개념과 유형을 정의하기로 하였다.

3)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의 유형

교육부의「2022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른 학교폭력 유형의 구분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학교폭력의 유형

유형	유형별 예시
신체 폭력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언어 폭력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형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됨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금품 갈취 (공갈)	•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강요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따돌림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성폭력	•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사이버 폭력	• 속칭 사이버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성희롱,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음란물 유통, 대화명 테러, 인증놀이, 게임부주 강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저격글이 그 한 형태임 •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교육부(2022)의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가이드」에서는 학교폭력 유형 중 사이버폭력의 세부 유형을 아래 <표 2>와 같이 제공하고 있다.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특히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 범주에 포함한다. 사이버폭력은 사이버 공간에 기록된 내용은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 시공간적 제한 없이 폭력에 지속적 노출될 수 있다는 점, 익명성으로 가해 행동에 쉽게 가담할 수 있다는 점, 피해자를 공격하는 소문이나 허위사실 등이 빠르게 복제 및 확산하여 전파될 수 있다는 점, 다른 학교폭력 유형보다 더 은밀하게 발생한다는 점 등에서 전통적 학교폭력과 구분된다.

<표 2> 사이버폭력의 유형

유형	유형별 예시
사이버 명예훼손	▪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를 비하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거짓을 말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떨어뜨리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사이버 언어폭력	▪ 채팅방, 게시판 등 사이비 공간에서 문자, 사진, 동영상 등으로 비방글, 악성댓글, 욕설 등을 올리는 행위
사이버 영상유포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 동의 없이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특정 신체 부위나 각종 유해성 사진, 영상 등을 전송 및 유포하여 괴롭히는 행위
사이버 따돌림	▪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 상대를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하거나 채팅방에서 퇴장하지 못하게하는 것과 같은 모든 행위
사이버 갈취	▪ 사이버머니, 금품갈취형으로 주로 와이파이 셔틀, 게임머니 등 사이버상 갈취 형태의 괴롭힘
사이버 스토킹	▪ 사이버 공간에서 원하지 않는 문자, 사진,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모든 행위

2. 애착 이론

1) 불안·회피 애착

Wallin(2007)의 『Attachment in Psychotherapy』에 따르면, 불안형 애착과 회피형 애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불안형 애착

낯선 상황에서 불안형 유아는 오로지 엄마에게 관심을 집중했다. 불안형 유아는 한편으로는 매달리고 화내면서 저항하기를 번갈아 하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무력하게 수동적인 상태에 빠져 있어서 달래기가 극히 힘들었다. 이들은 엄마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줄곧 염려했기 때문에, 불안에 너무나 압도되어 탐험할 수 없는 것 같았다. 이는 그들의 불안 저변에 깔린 유기와 무력감에 대한 두려움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다.

불안형 유아들의 '과잉 활성화' 전략은 부모가 늘 관심을 줄 것이라고 믿을 수 없었기에 부모의 관심을 확보하기 위해 그들의 고통을 증폭하는 법을 배우면서 시작되었다. 이들에게 애착 대상은 어떤 때는 비교적 잘 반영해 주고, 또 어떤 때는 침해하거나 마음으로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친밀함에 대한 기대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친밀함의 상실 가능성에 계속해서 집착하도록 만들었다.

② 회피형 애착

회피형 애착은 전형적으로 안정 애착 또래들에 비해 융통성과 풍부한 자원이 부족했다. 낯선 상황에서 그들은 실질적으로 애착 행동을 완전히 배제한 채 탐험에만 몰두했다. 생후 12개월에 이 유아들은 엄마를 적극적으로 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행동은 아마도 아이가 이전에 신체적이고 감정적인 접촉을 시도했을 때 엄마가 지속적으로 시종일관 거

절했던 것, 혹은 다른 연구자들이 제안하듯이, 침해적이고 통제적이며 과도하게 자극하는 엄마의 양육방식에 대한 반응으로 추정된다.

이 '최소화하기' 나 '비활성화하기' 전략들은 서로 엮어져 회피형/무시형 개인의 내적인 경험과 대인 간 경험을 형성하는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모순된 작동 모델들에 자리 잡는다. 한 모델은 의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여기에서 자기는 '좋고 강하며 완전한' 반면, 타인들은 믿을 수 없고 욕구가 많으며 부적절하고 여겨진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두 번째는 무의식적이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모델로서, 여기에서 자기는 '결함이 있고 의존적이며 무력한' 반면에, 타인들은 자기에 대한 반응으로 '거부적이고 통제적이며 처벌적일 가능성이 높다' 고 지각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전략들은 애착 체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감정적인 경험을 억제하면서 의식적인 모델의 본질을 조장한다.

불안 및 회피 애착이 위와 같이 행동 전략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일부 학자들은 이들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한다. Hughes(2003)에 따르면, 애착 수준은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고 이해하기보다 일련의 스펙트럼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예로, 실제로 애착 장애(attachment disorder)는 안정형 애착과 불안정 애착 두 가지를 나누어 후자를 애착 장애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스펙트럼상 애착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로 애착 장애 단계를 평가하기도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불안 및 회피 애착의 경우에도 두 가지 성향을 모두 가지고 있거나 두 가지 유형 중 한 가지의 성향이 더 강하기 드러날 수 있을 뿐 이를 엄밀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애착 유형에 대한 이러한 관점에 동의하여, 각 애착 수준의 정도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성찰적 자기와 정신화

Fonagy는 마음 이론에 착안하여 일반적으로는 마음 상태 그리고 특정적으로는 타인의 마음 상태에 대한 성인의 주의와 애착의 관계를 탐구하였다(Fonagy et al., 1991). 그는 정신화(mentalizing), 즉 마음을 갖는 것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중재한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깨닫는 과정의 특징은 자기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마음에 대한 지식이라고 했다(Fonagy et al., 2002).

정신화 활동의 예를 들자면, 딸이 아버지가 자신을 거부하는 이유가 아버지의 적대감 때문이 아니라 우울 때문일 수도 있다고 알아차리는 것과 같은 과정이 있다. 이는 과거 애착 이론에서 성찰적 기능이라고 불렀던 능력에서 유래한 것이다. 성찰적 기능은 우리가 자신과 타인을 심리적 깊이를 가진 존재로 보게 해준다. 이런 기능은 관찰된 행동뿐만 아니라 욕망과 느낌 및 신념과 같은 행동 저변의 마음 상태를 토대로 하여 우리가 우리의 경험에 반응하게 해주는데, 이런 마음 상태는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다. 이처럼 성찰적 기능은 통찰하고 공감하는 능력과 밀접하다(Wallin, 2007).

개인의 정신화 능력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Fonagy와 동료들은 성찰적-기능 척도를 만들었다(Fonagy et al., 1998) 이 척도는 연구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또한 어떤 종류의 개입이 환자에게 좋을지에 대한 임상적 판단을 돕는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내담자가 다음을 보여 줄 때 정신화 능력-그리고 어쩌면 치료 장면에서는 치료자의 해석에 대한 수용성-이 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암묵적 지식에 가까운 성찰적 기능과 정신화에 대해 구체적인 개념을 파악하는 데 유익하므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① 정신적 상태의 속성을 알아차림

예를 들어, 우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는 항상 불완전하다, 사람들은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신적 상태를 바꿀 수도 있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내적 상태를 숨길 수 있다,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특정한 심리적 반응을 예측할 수 있다 등을 인식한다.

② 행동 기저의 정신적 상태를 알아내려는 명시적인 노력

예를 들어, 신념과 느낌 및 욕구의 관점에서 행동을 그럴듯하게 설명할 수 있다. 타인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우리 자신의 정신적 상태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음을 이해한다. 어떤 상황에 대한 느낌이 그 상황에 대해 관찰할 수 있는 측면들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깨닫는다.

③ 정신적 상태의 발달적인 측면을 인식

예를 들어, 어제의 느낌은 오늘이나 내 일의 느낌과 다를 수도 있다. 부모의 행동은 그들 부모의 행동에 의해 형성되었고 또한 그들 자녀의 행동을 형성한다. 어린 시절의 관점은 종중 어른의 시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④ 면접자(혹은 치료자)와의 관계에서 정신적 상태를 알아차림

예를 들어, 환자가 말해주지 않으면 치료자는 환자가 알고 있는 것을 알 수 없다. 치료자는 환자의 이야기에 대해 자신만의 독특한 감정적 반응을 가질 수 있다. 치료자의 역사, 그리고 결과적으로 치료자의 정신적 상태는 당연히 환자와 다를 수 있다,

3. 용서와 자기 자비

1) 용서의 개념

용서는 합의(pardoning), 묵인(condoning), 실례(excusing), 잊음(forgetting), 그리고 부인(denial)과 다르며, 분열된 관계의 회복을 암시하는 용어인 화해와도 구별된다(Enright & Coyle, 1998) 용서를 정의하는데 있어 더 나아가기 위해 우선 용서를 세 가지로 구별해야 하는데, 용서는 그것의 속성에 따라 타인에 대한 대응, 기질, 그리고 사회적 요소으로 구분되어 정의될 수 있다(McCullough & Witvliet, 2002).

타인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용서는 비난받을 만한 위반자를 향한 피해자의 생각, 감정, 그리고/또는 행동의 친사회적 변화로 이해될 수 있다. 타인에 대한 용서의 정의는 이 외에도 다양하지만, 사람들이 용서할 때 그들을 불쾌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반응(즉, 느끼고 생각하는 것, 무엇을 하고 싶은가, 혹인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덜 부정적이고 더 긍정적이거나 친사회적으로 변화한다는 경험은 공통적이기 때문이다(McCullough et al., 2000). 반면, 기질로서의 용서는 다양한 대인관계 환경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경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확장될 수 있다. 기질로서 용서는 다양한 대인관계 환경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경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용서를 이해한다면, 용서는 연속적인 성질이며, 모든 사람을 연속선상의 점으로 표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요소로서 용서는 친밀감, 신뢰 또는 헌신과 유사한 속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일부 사회 구조(예: 일부 결혼, 가족 또는 공동체)는 높은 수준의 용서(예: 결혼, 가족, 참여자들이 그들의 위반에 대해 쉽게 용서받는 공동체)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회 구조(예: 위반을 저지른 구성원들을 배척하거나 보복하기 위해 서두르는 사회 기관)에서는 용서가 덜할 수 있는 것이다.

2) 자기 자비의 개념

전통적으로 자존감(Self-esteem)은 심리적 건강의 주요 척도로 다루어져 왔으며, 높은 자존감의 심리적 이점은 학계와 대중 매체에서 오랫동안 널리 칭송되어 많은 학교가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프로그램을 채택하게 되었다(Neff, 2003b). 그러나 낮은 자존감이 동기부족, 우울증, 자살 충동과 같은 많은 부정적인 심리적 결과들과 연결되어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Harter, 1999),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이것의 해결책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첫째, 자존감이 변화에 매우 저항력이 있다는 것이 입증(Swann, 1996)되었기 때문에 개인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은 실제로 어렵다. 둘째, 심지어 높은 자존감은 부정적인 심리적 변인과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일부 심리학자들은 자아를 평가하고 좋아하는 것에 지나치게 중점을 두는 것은 나르시즘, 자기중심주의, 그리고 이타심의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Damon, 1995; Seligman, 1995). Baumeister와 연구진(1996)에 의하면, 자존감을 보호하거나 강화하려는 시도는 자아 인식의 왜곡을 불러올 수도 있으며, 부풀려진 자존감은 자아를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성과 폭력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몇몇 심리학자들은 자신과의 건강한 관계와 태도를 설명할 수 있는 자존심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자아 존중(self-respect)(Seligman, 1995), 자아효능감(Bandura, 1990), 진정한 자존감(true self-esteem)(Deci & Ryan, 1995), 또는 개인적 성격(personal character)(Damon, 1995)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Neff는 자존감을 대체할만한 개념으로 불교 철학의 '자비' 개념을 도입한 '자기 자비(Self-compassion)'를 새롭게 제시한다.

Neff의 '자기 자비' 정의는 일반적인 '연민(compassion)'의 정의와 관련이 깊다. 연민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여,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인식을 열고, 타인의 고통에서 도망가려 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연민

을 통해 우리는 타인에 호의와 그들의 고통을 완화하려는 욕구를 나타낸다(Wispe, 1991). 그것은 또한 실패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비-판단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그들의 행동과 보편적인 인간 행동의 오류 맥락에서 바라보도록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기에 대한 연민은 자신의 고통을 피하거나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만지고 개방하는 것을 내포한다. 이는 타인에 대한 연민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고통을 완화하고 친절함으로 자신을 치유하려는 욕구를 일으키며, 자신의 고통, 불충분함, 실패에 대한 비-판단적인 이해를 제공하여 그 경험이 더 큰 인간 경험의 일부로 보이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많은 심리학 이론들이 개인은 주로 자기 자신에 대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관심이 있다고 가정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그들이 관심을 가진 다른 사람들 또는 심지어 낯선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보다 훨씬 더 자신에게 가혹하고 불친절하다고 이해할 것이다. 자신에 대한 그러한 엄격함은 때때로 두려움에서 비롯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기 연민은 타인에 대한 동정심과 관심의 감정을 함께 증진하는 경향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자기 연민은 고통, 실패, 부족이 인간의 일부이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연민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인간의 공통 경험에 비추어 자신의 경험을 보는 것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Enright는 우리가 타인을 용서할 때, 그를 인간 공동체에 들어오도록 환영하고, 서로를 존중할 가치가 동등하게 있다는 것을 깨우친다(Enright et al., 1998)고 언급한다. 마찬가지로, 자기 연민은 자신의 결점과 약점을 용서하고, 자신을 완전한 인간으로 존중하며, 따라서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존재로 존중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고통이나 개인적 실패의 경험에 직면했을 때, 자기 자비는 세 가지 기본 요소를 수반한다: (a) 자기 친절(self-kindness) - 가혹한 판단과 자기 비판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대한 친절과 이해를 확장하고, (b) 보편성(common humanity)은 자신의 경험을 분리해서 보기보다는 더 큰 인간 경험의 일부로 본다. (c) 마음 챙김(mindfulness) - 고통스러운 생각과 감

정을 지나치게 동일시하기보다 균형 잡힌 인식 속에 간직하는 마음가짐을 가진다.

자기 자비의 이러한 측면들은 개념적으로 구별되고 현상학적 수준에서 다르게 경험되지만, 그것들은 또한 상호작용하며 강화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자기 친절과 보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부정적 경험으로부터 충분한 정신적 거리를 두는 마음 챙김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미 제기됐다. 마음 챙김은 두 요소에 반대의 직접적인 영향도 미친다. 첫째, 마음 챙김의 비-판단적이고 초연한 자세는 자기비판을 줄이고 자기 이해를 증가시켜 자기 친절을 직접적으로 증진한다(Jopling, 2000). 게다가, 자기 친절이 초래하는 자신과 깊은 연결감은 마음가짐을 더욱 증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정 수준의 자기 수용을 경험할 정도로 오랫동안 자신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을 중단한다면, 부정 정서가 줄어들 것이고, 따라서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Goldstein & Kornfiold, 1987), 균형 잡힌 인식을 유지하는 것이 더 쉬워진다는 것이다(Fredricson, 2001). 비슷하게, 고통과 개인적인 실패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한 사람의 경험을 원근법으로 보는 데 도움을 주며, 또한 한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염두에 두고 그들과 지나치게 동일시하지 않는 능력을 향상한다. 마지막으로, 자기 친절과 보편성의 감정 또한 서로를 증진하는 관계가 있다. 자아가 혹독하게 평가될 때, 자의식은 강화되고 이 높아진 자아의식은 고립감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Brown, 1999). 그러나, 자신에 대한 친절은 이러한 자의식을 부드럽게 하여, 상호 연결의 더 많은 감정을 허용한다(Fromm, 1963). 반대로, 고통과 개인적인 실패가 다른 사람들과 공유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자신에 대한 비난과 판단의 정도를 줄여주며, 자신의 경험을 비-개인화하여 자신을 포함한 고통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과 이해의 감정이 생성되도록 한다. 종합하면, 자기 자비의 세 가지 요소는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상호작용하며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상승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성인 남녀 32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지침에 근거하여 연구 참여자 모집 문건, 연구 참여자용 설명문 및 동의서를 제공하였으며,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한 경우에만 연구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실제 문건은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설문 링크는 각종 대학 커뮤니티, 지역 커뮤니티, 취업 커뮤니티 등 다수의 성인이 활동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배포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응답자 327명 중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49명을 제외한 278명이 연구 대상자로 선별되었다. 선별된 278개의 표본에서 결측치를 포함한 자료 4개와 불성실 응답 자료 12개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62개의 표본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3>에 제시하였다. 참가자들의 성별은 여자 185명(70.6%), 남자 75명(28.6%) 및 명시하지 않은 2명(0.8%)으로 여성 응답자 비율이 높았다.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27.27세(표준편차=5.48)로, 20대가 172명(65.6%)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76명(29.0%), 40대 이상 8명(3.1%), 19세 6명(2.3%) 순이었다. 참여자의 최종 학력은 대학 졸업자가 144명(55.0%)로 가장 많았고, 대학 재・휴학 85명(32.4%), 석사 재학 이상 28명(6.9%), 고졸 이하 15명(5.7%) 순이었다.

<표 3>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나이, 학력)

구분		인원(명)	비율(%)*
성별	여자	185	70.6
	남자	75	28.6
	명시하지 않음	2	0.8
연령 (만 나이)	19세	6	2.3
	20대	172	65.6
	30대	76	29.0
	40대 이상	8	3.1
학력	고졸 이하	15	5.7
	대학 재・휴학	85	32.4
	대학 졸업	144	55.0
	석사 재학 이상	28	6.9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2) 학교폭력 피해 유형 및 빈도

본 연구의 참여자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1회 이상인 성인으로, 피해 경험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 경험이 있는 학교폭력 유형을 복수 응답하도록 하였다. 빈도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했다. 수집된 262명의 표본 중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1가지 유형에만 해당하는 경우가 106명(40.5%), 2개 80명(30.5%), 3개 40명(15.3%), 4개 이상 36명(13.7%) 순으로 나타났다. 단, 단일 피해 사건에서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을 동시에 경험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피해 횟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복수 응답이 허용된 학교폭력 피해 경험 유형에 대해서는 언어폭력 140회(26.7%), 따돌림 126회(24.0%), 사이버폭력 77회(14.7%), 신체 폭력 73회(13.9%) 순으로 피해 경험이 많았으며, 사이버폭력 내에서는 사이버 언어폭력 40회(33.3%), 사이버 명예훼손 32회(24.8%), 사이버 따돌림 30회(23.3%)가 높은 빈도를 기록했다.

<표 4> 학교폭력 피해 유형 및 빈도

구분			인원(명)	비율(%)
학교폭력 피해 유형	학교폭력 세부 유형	신체 폭력	73	13.9
		언어폭력	140	26.7
		금품 갈취	63	12.0
		강요	37	7.0
		따돌림	126	24.0
		성폭력	9	1.7
		사이버폭력	77	14.7
	사이버 폭력 세부 유형	사이버 명예훼손	32	24.8
		사이버 언어폭력	43	33.3
		사이버 영상 유포	8	6.2
		사이버 따돌림	30	23.3
		사이버 갈취	9	7.0
		사이버 스토킹	7	5.4
학교폭력 피해 유형 응답 횟수		1개	106	40.5
		2개	80	30.5
		3개	40	15.3
		4개 이상	36	13.7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2. 연구 도구

1) 학교폭력 피해 경험

학교폭력 경험은 정의와 측정 도구가 매우 다양하다. 특히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폭력의 양상은 더욱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측정 도구도 이러한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정여주, 신윤정, 2020). 실제로 Ybarra와 연구진(2012)에 따르면, 학교폭력 경험의 측정은 학교폭력의 정의가 어떻게 제시되느냐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피해 경험 측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자가 이해하는 학교폭력의 정의나 유형이 응답자가 이해한 바와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신 국내 법률과 교육부의 지침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2022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라 학교폭력을 ① 신체 폭력 ② 언어폭력 ③ 금품 갈취(공갈) ④ 강요 ⑤ 따돌림 ⑥ 성폭력 ⑦ 사이버폭력으로 구분하고, 사이버폭력은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가이드」에 따라 다시 ① 사이버 명예훼손 ② 사이버 언어폭력 ③ 사이버 영상 유포 ④ 사이버 따돌림 ⑤ 사이버 갈취 ⑥ 사이버 스토킹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수집하였다. 먼저, 학교폭력의 유형을 위의 설명과 같이 학교폭력 유형 7가지와 사이버폭력의 세부 유형 6가지로 구분하고, 그에 대한 설명과 예시를 참여자에게 구체적으로 제공하였다. 참여자는 제시된 학교폭력 유형에 대해 피해 경험이 있는 곳에 선택하도록 하였다(복수 응답 가능). 두 번째 부분은 피해 경험 중 주관적으로 가장 영향이 컸다고 느끼는 사건에 대해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를 중심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이는 참여자들이 한 가지 피해 사건과 특정 가해자를 떠올리도록 하여 이후 설문 응답이 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불성실 응답을 판별하기 위함이다.

2) 불안·회피 애착

성인 애착 유형인 불안 애착과 회피 애착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Brennan과 동료들(1998)이 개발하고 Fraley 외(2000)가 개정한 친밀 관계 경험 검사(Experience of Close Relationship Scale-Revised: ECR-R)를 김성현(2004)이 한국판으로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했다. ECR-R 척도는 성인 애착 유형을 불안 및 회의의 2개의 독립적인 차원으로 나누어, 불안 애착을 측정하는 '때로 다른 사람들은 분명한 이유 없이 나에 대한 그들의 감정을 바꾸곤 한다.' 등 18문항과 회피 애착을 측정하는 '다른 사람들이 내게 가까워지려고 하면 불편하다.' 등 18문항으로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7점)까지 7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며, 부정 문항을 역채점 한 뒤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애착 유형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한국판 ECR-R의 타당화 과정에서 내적 일치도는 불안 애착 .89, 회피 애착 .85로 안정적으로 보고되었으며(김성현, 2004), 성인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양지선, 홍혜영 2022)에서도 불안 애착은 .93, 회피 애착은 .88으로 안정적인 신뢰도가 보고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불안 애착은 .910, 회피 애착은 .914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ECR-R 척도의 불안 애착 및 회피 애착의 두 차원은 각각 1요인으로, 3개 이상의 문항꾸러미를 제작하는 것이 분석에 유리하다(McCallum et al., 1999). 문항꾸러미 제작 결과 및 각각에 대한 내적 일치도 값은 <표 5> 및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5> 불안 애착 척도

문항꾸러미 (item parceling)	문항 수	문항 번호	내적 일치도 (Cronbach's α)
불안 애착1	6	1, 2, 8, 9, 16, 17	.797
불안 애착2	6	3*, 4, 11, 13*, 14, 15	.767
불안 애착3	6	5, 6, 7, 10, 12, 18	.756

*역 채점 문항

<표 6> 회피 애착 척도

문항꾸러미 (item parceling)	문항 수	문항 번호	내적 일치도 (Cronbach's α)
회피 애착1	6	4*, 5*, 12*, 13*, 16*, 17*	.774
회피 애착2	6	1, 6*, 11*, 14*, 15*, 18	.778
회피 애착3	6	2*, 3, 7, 8*, 9*, 10	.798

*역 채점 문항

3) 가해자 용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성인의 특정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 용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오영희(2010)가 한국 문화에 맞게 개발한 24문항 가해자 용서 척도의 단축형(오영희, 2011)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용서는 기질적 용서 태도, 대인 용서, 자신에 대한 용서 등 그 정의와 측정 도구가 매우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괴롭힘 사건의 구체적인 가해 당사자에 대한 용서 수준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므로, 특정 대상을 염두에 두고 응답하는 가해자 용서 척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가해자 용서 척도는 EFI(Enright Forgiveness Inventory)로, 부당하고 심각한 상처를 준 사람을 얼마나 용서하고 있는지를 측정한다(Enright, 2000). 그러나 한국에서 낯설고 부적합하다고 느끼는 문항이 있다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항이 빠져 있는 문제(오영희, 2006), 하위요인을 한국인들은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박종효, 2006), 성인용 EFI는 60문항으로 문항 수가 너무 많아 피로함을 느낀다는 지적(오영희, 2004)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한국인에게 적합한 문항으로 재구성한 한국판 용서 척도는 EFI와 높은 상관을 보여,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가해자 용서를 측정하기에 적절하다.

한국판 가해자 용서 단축형 척도는 두 부분으로 구분되며, 첫 번째 부분은 자신이 받은 상처 기술과 평가로, 언제 누구와 무슨 일이 있었고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간단히 기술하도록 한다. 두 번째 부분은 ‘그 사람과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다.’ 등의 10개의 문항에 대해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한다. 이 중 부정적 문항 5문항은 역 채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용서 수준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 시작 전 대상자 선별을 위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피해 유형과 핵심 피해 사건 1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을 진행하였기에 첫 번째 부분을 생략하였다. 또한, 두 번째 부분인 용서 측정 전에, 앞서 기술한 핵심 사건의 가해자 1명을 떠올리며 측정하도록 하였다.

가해자 용서의 전체형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 20-50세 한국 성인 남녀 1183명을 대상으로, 단축형은 1560명을 대상으로 타당성을 검증했다. 전체형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95, 4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r=. 85로 확인되어 우수했다. 단축형 역시 양호한 문항 내적 일치도(Cronbach α = .86)를 보여주었고, 4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도 비교적 양호하였다(r = .78). 또한 단축형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해본 결과, 1요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설명변량 44.80%). 단축형 용서 척도의 점수는 분노, 불안, 우울 점수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나 준거 타당도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축형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전체형(24문항)과 비교했을 때 신뢰도만 다소 떨어지고 타당도는 유사하였으며, 성별과 연령에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아, 성인 남녀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문항 내적 일치도(Cronbach α = .86)도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해자 용서 척도는 1요인이므로, 마찬가지로 3개의 문항 묶음을 요인 알고리즘법을 활용하여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문항 꾸러미 제작 결과 및 각각에 대한 내적 일치도 값은 아래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가해자 용서 척도

문항꾸러미 (item parceling)	문항 수	문항 번호	내적 일치도 (Cronbach's α)
가해자 용서1	3	3*, 4, 8*	.661
가해자 용서2	3	6*, 7, 9	.712
가해자 용서3	4	1*, 2, 5*, 10	.689

*역 채점 문항

4) 자기 자비

Neff(2003a)가 개발한 SCS(Self-Compassion Scale: SCS)를 김경의와 동료들(2008)이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자기 자비 척도를 사용하였다. ‘나는 내 자신의 결점과 부족한 부분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비난하는 편이다.’ 등의 총 2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고 부정 문항인 13문항은 역 채점하여 총점을 산출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자기 자비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SCS는 자기 자비 개념을 처음 제시한 Neff가 자기 자비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Neff, 2003a)로, 자기 자비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다룬 다수의 연구에서 널리 활용(Zessin et al., 2015)하고 있다. Neff는 SCS 척도의 타당도, 하위 요인 구조 및 자기 자비 이론과의 부합성을 재검증(Neff, 2016)했으며, 최근까지도 국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신뢰도 있고 적절한 척도임을 검증(Neff & Tóth-Király, 2022)하였다. 또한 김경의 외(2008)의 한국판 SCS는 성인 대상 국내 연구의 자기 자비 측정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신뢰도와 타당도가 안정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자기 자비의 하위 요인으로는 자기-친절(Self-Kindness, 5문항) 대 자기-판단(Self-Judgement, 5문항), 인간보편성(Common Humanity, 4문항) 대 고립(Isolation, 4문항), 그리고 마음 챙김(Mindfulness, 4문항) 대 과잉-동일시(Over-Identification, 4문항)의 6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Cronbach α는 원 척도는 .92, 한국 번안판은 .87 로 보고되었고, 대학생 269명 대상 연구에서 Cronbach α = .93(박세란, 이훈진, 2013), 대학생 362명 대상 연구에서 Cronbach α = .86(노상선 외, 2014) 등 안정적인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Cronbach α = .931로 높은 신뢰도가 확인되었다. 자기 자비 척도의 6가지 하위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 및 각각의 내척 일치도 값은 아래 <표 8>에 나타내었다.

<표 8> 자기 자비 척도

하위 요인	문항 수	문항 번호	내적 일치도 (Cronbach's α)
자기-친절 (Self-Kindness)	5	5, 12, 19, 23, 26	.815
자기-비난 (Self-Judgement)	5	1*, 8*, 11*, 16*, 21*	.812
보편적 인간성 (Common Humanity)	4	3, 7, 10, 15	.730
고립감 (Isolation)	4	4*, 13*, 18*, 25*	.737
마음 챙김 (Mindfulness)	4	9, 14, 17, 22	.731
과잉-동일시 (Over-identification)	4	2*, 6*, 20*, 24*	.741

*역 채점 문항

3. 데이터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SPSS Statistics 25.0과 AMOS Graphics 25.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SPSS Statistics 25.0 프로그램으로 기술통계,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 및 문항 묶음 제작을 위한 요인분석 등을 진행했으며, AMOS Graphics 25.0로는 확인적 요인분석, 경로 분석, 모형적합도 분석 및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매개효과 분석 등을 진행하였다. 분석 절차는 아래와 같다.

첫째, 분석에 선행하여 단일 차원으로 구성된 불안 애착, 회피 애착 및 가해자 용서 변인에 대해 문항꾸러미(item parceling)를 제작하였다. 단일 차원으로 구성된 변인의 경우 각 문항을 모두 관측변수로 투입해야 하는데, 이렇게 관측변수가 늘어나면 측정모형 및 구조모형에서 추정해야 할 모수 역시 늘어나기에, 문항꾸러미를 제작하여 관측변수의 수를 줄여 측정오차 및 잠재적인 표집오차를 통제할 수 있다(McCallum et al., 1999). 문항꾸러미를 제작하는 방법은 다양하나,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각 문항의 요인 부하량을 확인하고, 부하량이 큰 문항과 작은 문항을 순서대로 묶어 나가는 요인 알고리즘(factorial algorithm)법(Orcan, 2013)을 활용하여 각각 3개의 문항꾸러미를 형성하였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과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등을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확인하여 자료의 경향성을 파악하였다. 특히 자료의 정규성을 알아보기 위해 주요 변인의 왜도 절댓값이 2보다 작고 첨도의 절댓값이 4보다 작은지 함께 확인(강현철, 2013)하였다. 또한 학교폭력 경험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도 실시하였다.

셋째, 각 변인 간 상관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변인 간 상관계수의 크기도 함께 확인하였다. 다중공선성이란, 독립변인 간 높은 상관으로 인해 개별 독립변인이 종속 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오류가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김준우, 2007). 일반적으로 측정 변인 간 상관계수의 절댓값이 0.7 이

상일 경우 다중공선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권순동, 2015).

넷째, 연구 변인을 측정한 각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내적 일치도 계수인 Cronbach’s α값을 확인하였다. 각 척도의 하위 요인 및 문항꾸러미 별 Cronbach’s α값도 함께 보고하였다. 내적 합치도 계수는 0.6이상 0.7미만은 수용 가능한 수준, 0.7이상 0.8미만은 양호한 수준, 0.8이상은 우수한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다(강현철, 2013).

다섯째, AMOS 25.0의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선행연구의 제안(Anderson & Gerbing, 1988)에 따른 것이다. 계수 추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였다. 모형의 타당성은 Chi-square(χ^2), Comparative Fit Index(CFI), Tucker-Lewis Index(TLI),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 Standerized RMR(SRMR)과 같이 다양한 적합도 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Kline, 2011). 선행연구에 따라, TLI와 CFI는 .90이상일 때 우수한 적합도를 가지며(배병렬, 2017), SRMR과 RMSEA는 .05이하면 좋은 모형, 0.05~0.08이면 양호한 모형, 0.08~0.10이면 보통 모형, 0.10 이상이면 나쁜 모형으로 간주했다(Browne & Cudeck, 1992).

여섯째, 연구 모형 및 수정 모형의 구조모형 검증을 위해 경로계수의 유의성과 모형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모형 타당성 검증의 방식은 앞서 진행한 측정모형 검증 방식과 같다. 연구 모형의 구조적 타당성을 검증한 이후, 수정 모형과 비교하여 적절한 모델을 채택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했다. 부트스트래핑 기법은 주어진 자료에서 표본을 반복적으로 뽑아내어 표집분포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신뢰구간의 상한 및 하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을 때 유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Orcan, 2013).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래핑 기법으로 5000회 이상의 무작위 표본을 추출하고, 편이 교정(bias-correlation)을 통해 신뢰구간 95%로 분석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주요 변인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자료의 경향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치를 확인하였다. 각 변인의 하위 요인 및 문항꾸러미에 따른 연구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에 대한 기술통계치는 <표 9>에 제시하였다. 모든 측정 변인에 대해 왜도 절댓값이 2보다 작고, 첨도 절댓값이 4보다 크다는 점에서 정규성 가정을 충족한다고 추정한다.

<표 9> 주요 변인 기술통계 분석 결과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불안 애착	불안 애착1	3.778	1.146	-.238	-.446
	불안 애착2	3.913	1.082	-.051	-.151
	불안 애착3	4.132	1.062	-.413	.106
	합계	3.941	1.005	-.245	-.122
회피 애착	회피 애착1	4.025	1.040	.271	.050
	회피 애착2	3.915	1.063	.220	.153
	회피 애착3	4.038	1.083	-.057	-.091
	합계	4.005	.977	.152	.449
가해자 용서	가해자 용서1	2.248	.742	.095	-.966
	가해자 용서2	2.129	.805	.485	-.687
	가해자 용서3	2.115	.836	.376	-.930
	합계	2.159	.686	.297	-1.025
자기 자비	자기-친절	3.128	.826	-.414	-.438
	자기-비난	2.783	.871	.277	-.422
	보편적 인간성	3.250	.772	-.398	.057
	고립감	2.719	.872	.323	-.331
	마음 챙김	3.297	.770	-.446	.194
	과잉-동일시	2.615	.838	.191	-.326
	합계	2.965	.668	-.209	-.062

이어, 변인 간 상관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진행하였다. 두 변인의 상관계수가 0.2 이상 0.4 이하이면 낮은 상관, 0.4 이상 0.7 이하이면 비교적 높은 상관, 0.9 이상은 매우 높은 상관임을 의미한다(강현철, 2013). 먼저, 불안 애착과 회피 애착(r=.265, p<.001)은 유의한 낮은 정적 상관, 불안 애착과 자기 자비(r=-.542, p<.001)는 유의한 높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반면, 불안 애착과 가해자 용서 간 상관(r=-.155, p<.005)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회피 애착과 가해자 용서(r=-.386, p<.001)는 유의한 낮은 부적 상관, 회피 애착과 자기 자비(r=-.544, p<.001)는 유의한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자기 자비와 가해자 용서(r=.379, p<.001) 또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각 변인 간, 그리고 각 변인의 하위 요인 및 문항꾸러미 간 상관분석 결과는 <표 10>에 제시하였다. 제시된 바와 같이 불안 애착과 회피 애착의 모든 문항꾸러미는 자기 자비의 모든 하위 요인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회피 애착의 모든 문항꾸러미는 가해자 용서의 모든 문항꾸러미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불안 애착의 문항꾸러미는 가해자 용서와 유의미한 상관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상관분석 결과로 다중공선성을 검토할 수도 있다. 다중공선성이란, 독립변인 간 높은 상관으로 인해 개별 독립변인이 종속 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오류가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김준우, 2007). 일반적으로 측정 변인 간 상관계수의 절댓값이 0.7 이상일 경우 다중공선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권순동, 2015). 그러나 본 연구의 측정 변인 간 상관계수의 절댓값은 0.544가 최대치이며, 각 변인의 문항꾸러미 및 하위 요인 간 상관계수 절댓값도 0.579가 최대치이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표 10>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1	1-1	1-2	1-3	2	2-1	2-2	2-3	3	3-1	3-2	3-3	4	4-1	4-2	4-3	4-4	4-5	4-6
1																			
1-1	.926**																		
1-2	.917**	.780**																	
1-3	.906**	.754**	.743**																
2	**.265****	.289**	.246**	.190**															
2-1	.123*	.138*	0.112	.085*	.906**														
2-2	.299**	.307**	.303**	.208**	.930**	.764**													
2-3	.308**	.350**	.261**	.229**	.924**	.743**	.803**												
3	**-.155***	-.044	-.182**	-.208**	**-.386****	-.381**	-.380**	-.306**											
3-1	-.065	.035	-.065	-.157*	-.206**	-.224**	-.192**	-.155*	.796**										
3-2	-.091	.005	-.140*	-.120	-.387**	-.361**	-.427**	-.281**	.849**	.534**									
3-3	-.210**	-.117*	-.229**	-.237**	-.376**	-.371**	-.345**	-.322**	.910**	.582**	.665**								
4	**-.542****	-.536**	-.458**	-.493**	**-.544****	-.466**	-.508**	-.527**	**.379****	.231**	.284**	.419**							
4-1	-.318**	-.283**	-.301**	-.290**	-.503**	-.506**	-.459**	-.425**	.470**	.321**	.347**	.501**	.856**						
4-2	-.551**	-.565**	-.433**	-.513**	-.456**	-.333**	-.433**	-.490**	.273**	.157*	.220**	.296**	.843**	.609**					
4-3	-.280**	-.327**	-.234**	-.204**	-.381**	-.319**	-.339**	-.393**	.145*	0.050	.126*	.173**	.702**	.554**	.439**				
4-4	-.581**	-.579**	-.474**	-.541**	-.403**	-.312**	-.385**	-.414**	.267**	.156*	.171**	.321**	.814**	.571**	.709**	.502**			
4-5	-.363**	-.371**	-.326**	-.299**	-.449**	-.420**	-.423**	-.398**	.278**	.166**	.199**	.316**	.787**	.724**	.522**	.593**	.486**		
4-6	-.503**	-.450**	-.430**	-.505**	-.424**	-.352**	-.402**	-.414**	.362**	.235**	.280**	.384**	.814**	.639**	.698**	.399**	.642**	.534**	

1) 1=불안 애착, 1-1=불안 애착1, 1-2=불안 애착2, 1-3=불안 애착3, 2=회피 애착, 2-1=회피 애착1, 2-2=회피 애착2, 2-3=회피 애착3, 3=가해자 용서, 3-1=가해자 용서1, 3-2=가해자 용서2, 3-3=가해자 용서3, 4=자기 자비, 4-1=자기-친절, 4-2=자기-비난, 4-3=보편적 인간성, 4-4=고립감, 4-5=마음 챙김, 4-6=과잉 동일시

2) N=262

3) ** p<.001, * p<.005

3. 측정모형 검증

각 관찰 변인들이 잠재 변인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여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표 11>에 제신된 바와 같이 χ^2 (df=78, N=262, p<.001)=220.873, CFI=.946, TLI=.927, RMSEA(90% CI)=.084, SRMR=.0591로서, CFI 및 TLI 값은 우수, SRMR 값은 양호, RMSEA 값은 보통 수준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등, 모든 지수가 적절한 수준으로 확인되어 측정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11> 측정모형의 모형적합도 지수

모형	N	χ^2	*df*	CFI	TLI	RMSEA (90% CI)	SRMR
측정 모형	262	220.873***	78	.946	.927	.084	.0591

*** p<.001

<표 12>는 각 관찰 변인이 잠재 변인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를 나타내는 표준화된 경로계수의 요인 부하량을 확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요인 부하량은 0.40 이상이 양호하다고 알려져 있다(Ford et al., 1986). 본 연구에서 불안 애착 문항꾸러미들의 요인 부하량은 .846~.902 범위, 회피 애착 문항꾸러미들의 요인 부하량은 .841~.908 범위로 매우 우수하며, 가해자 용서 문항꾸러미는 .665~.871 사이, 자기 자비의 6가지 하위 요인은 .607~.821 사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변인에 대해 C.R. 수치 역시 유의하다(p<.001). 따라서 각 관찰 변인들이 잠재 변인을 잘 구성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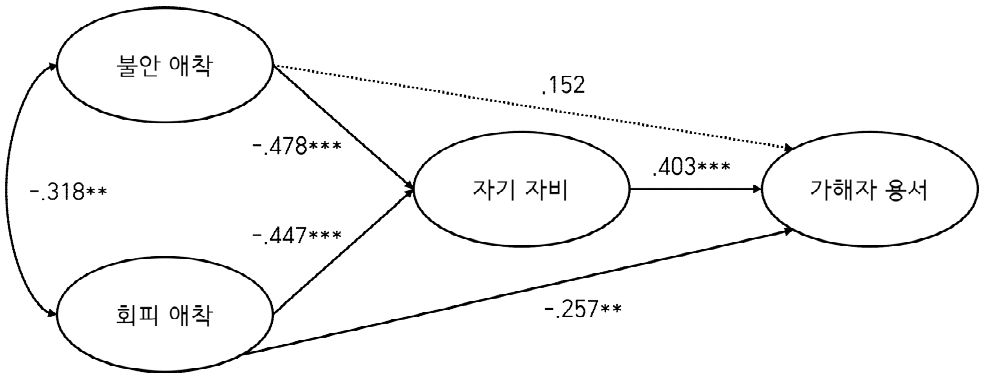
<표 12> 측정모형의 경로계수

요인	관측변수	Estimate		표준오차 (S.E.)	C.R.
		B	β		
불안 애착	불안 애착1	1.000	.903		
	불안 애착2	.902	.863	.048	18.613***
	불안 애착3	.869	.846	.048	18.062***
회피 애착	회피 애착1	1.000	.841		
	회피 애착2	1.104	.908	.060	18.350***
	회피 애착3	1.095	.884	.062	17.799***
상황 특수 용서	가해자 용서1	1.000	.665		
	가해자 용서2	1.259	.773	.123	10.257***
	가해자 용서3	1.473	.871	.140	10.493***
자기 자비	자기-친절	1.000	.797		
	자기-비난	1.085	.821	.074	14.603***
	보편적 인간성	.711	.607	.070	10.089***
	고립감	1.047	.791	.075	13.922***
	마음 챙김	.842	.720	.068	12.378***
	과잉-동일시	1.018	.800	.072	14.132***

*** p<.001

4.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애착 이론과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불안·회피 애착이 각각 가해자 용서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자기 자비가 각각 부분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라 가정하였다. 이에 근거한 연구 모형의 구조적 타당성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구조모형 검증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그림 2] 연구 모형 검증 결과

연구 모형과 그 검증 결과는 위 [그림 2]에 제시하였으며, 모형적합도 지수는 아래 <표 1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 모형의 χ^2 (df=79, N=262, p<.001)=222.359, CFI=.946, TLI=.928, RMSEA(90% CI)=.083, SRMR=.057로 나타났다. CFI 및 TLI 값은 .9 이상으로 우수한 수준, SRMR 값은 .05~.08 범위에 포함되어 양호한 수준, RMSEA 값은 .80~.10 범위에 속해 보통 수준의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연구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3> 연구 모형의 모형적합도 지수

모형	N	χ^2	df	CFI	TLI	RMSEA(90% CI)	SRMR
연구 모형	262	222.359***	79	.946	.928	.083(.060, .106)	.057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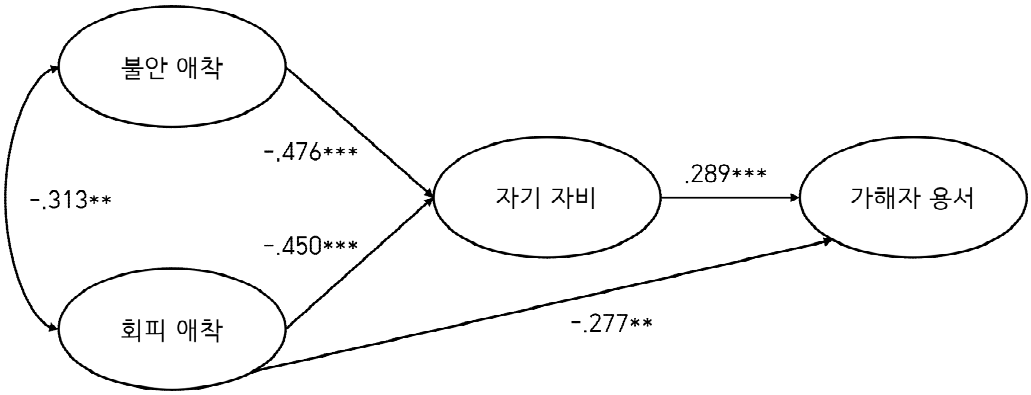
연구 모형의 경로계수 유의도 검정 결과는 <표 14>에 제시하였다. 먼저, 불안(β=-.478, p<.001)·회피 애착(β=-.447, p<.001)은 각각 자기 자비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 자비는 가해자 용서에 유의한 정적 영향(β=.297,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안·회피 애착이 가해자 용서로 이어지는 직접 경로는 애착 유형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회피 애착의 직접 효과(β=-.133, p<.005)는 유의했지만, 불안 애착의 직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회피 애착과 가해자 용서와의 관계에서는 자기 자비가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지만, 불안 애착의 경우 자기 자비가 완전 매개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14> 연구 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Estimate		S.E.	C.R.
	B	β		
불안 애착 → 자기 자비	-.310	-.478	0.381	-8.122***
회피 애착 → 자기 자비	-.313	-.447	0.412	-7.671***
불안 애착 → 가해자 용서	.073	.152	0.414	1.757
회피 애착 → 가해자 용서	-.133	-.257	0.445	-3.009**
자기 자비 → 가해자 용서	.297	.403	0.824	3.620***

*** p<.001 ** p<.005

이에, 연구 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인 불안 애착에서 가해자 용서로 이어지는 직접 경로의 경로계수를 0으로 설정하여, 불안 애착 → 자기 자비→ 가해자 용서 경로에서 자기 자비의 완전 매개를 가정한 수정 모형을 다음의 [그림 3]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3] 수정 모형 검증 결과

수정 모형의 모형적합도 지수를 연구 모형의 지수와 비교한 결과는 <표 15>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수정 모형의 모형적합도 지수는 χ^2 (df=76, N=262, p<.001)=175.709, CFI=.948, TLI=.962, RMSEA(90% CI)=.071, SRMR=.0496으로 나타났다. CFI 및 TLI 값은 .9 이상으로 우수한 수준, SRMR 값은 .05 이하로 우수한 수준, RMSEA 값은 .05~.80 범위에 속해 양호한 수준의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모든 적합도 지수가 불안 애착의 부분 매개를 가정한 연구 모형보다 완전 매개를 가정한 수정 모형에서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수정 모형이 자료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표 15> 모형적합도 지수 비교

모형	N	χ^2	df	CFI	TLI	RMSEA(90% CI)	SRMR
연구 모형	262	222.359***	79	.946	.928	.083(.060, .106)	.057
수정 모형	262	175.709***	76	.948	.962	.071(.061, .082)	.049

*** p<.001

최종 모형으로 채택된 수정 모형의 모수 추정치 결과는 <표 16>에 제시하였다. 먼저, 불안(β=-.476, p<.001)·회피 애착(β=-.450, p<.001)은 자기 자비에 각각 부적 영향을 유의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 자비가 가해자 용서로 이어지는 정적 영향도 통계적으로 여전히 유의하였다(β=.289, p<.001). 한편, 회피 애착은 가해자 용서(β=-.277, p<.005)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6> 수정 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Estimate		S.E.	C.R.
	B	β		
불안 애착 → 자기 자비	-.353	-.476	0.441	-7.946***
회피 애착 → 자기 자비	-.344	-.450	0.452	-7.600***
회피 애착 → 가해자 용서	-.156	-.277	0.486	-3.245**
자기 자비 → 가해자 용서	.213	.289	0.644	3.348***

*** p<.001 **p<.005

5. 매개효과 검증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성인의 불안·회피 애착과 가해자 용서의 관계에서 자기 자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모형에 대해 부트스트래핑 기법으로 5000개의 표본(95% 신뢰구간, N=292)을 생성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불안 애착 → 자기 자비 → 가해자 용서 경로와 회피 애착 → 자기 자비→ 가해자 용서 경로 각각에 대한 매개효과의 표준화 경로계수(β), 표준오차(S.E.), 부트스트랩 95% 신뢰구간을 <표 17>에 제시하였다.

<표 17> 매개효과 검증 결과

경로	β	S.E.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불안 애착 → 자기 자비 → 가해자 용서	-.285***	.061	-.421	-.181
회피 애착 → 자기 자비 → 가해자 용서	-.277***	.053	-.380	-.174

*** p<.001

분석 결과, 불안 애착 → 자기 자비→ 가해자 용서 경로에서 간접효과의 부트스트래핑 신뢰구간은 -.421~-.181이며, 회피 애착 → 자기 자비→ 가해자 용서 경로의 신뢰구간은 -.380~-.174로 두 경우 모두 신뢰구간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유의한 것(p<.001)으로 드러났다. 이로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성인의 불안·회피 애착이 가해자 용서로 이어지는 경로를 자기 자비가 유의하게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Ⅴ. 논 의

본 연구는 학교폭력 피해의 장기적이고 완전한 회복에 주목하여, 성인이 된 학교폭력 피해자의 가해자 용서 과정에 주목하였다. 즉,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성인의 가해자 용서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과 그 기제를 확인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성인의 불안 및 회피 애착 수준이 가해자 용서 부적 예측하며 그 경로를 자기 자비가 매개할 것이라는 연구 가설을 수립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262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27.27세, 성별은 여자 185명(70.6%), 남자 75명(28.6%)으로 나타났다. 복수 응답이 허용된 학교폭력 피해 경험 유형 및 빈도 분석 결과, 언어폭력이 140회(26.7%)로 가장 빈도가 높았으며, 사이버폭력은 77회(14.7%)로 보고되었다. 사이버폭력 내에서는 사이버 언어폭력 40회(33.3%), 사이버 명예훼손 32회(24.8%) 순으로 보고되었다. 실제로 교육부의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언어폭력이 전체 학교폭력 피해 유형 중 가장 높은 빈도(41.8%)를 기록하였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2021)의 사이버폭력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피해 유형 중 청소년과 성인 모두에게서 언어폭력(각 16.4%, 8.7%)의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사이버 명예훼손(각 10.8%, 5.8%)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실태 조사 결과는 본 연구 대상의 학교폭력 피해 유형 및 빈도 분석 결과와 일치하여, 본 연구의 표본이 적절하게 구성되었음을 보여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위해 먼저 단일 요인 측정 도구의 문항 꾸러미를 제작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여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확인(χ^2 =220.873, CFI=.946, TLI=.927, RMSEA(90% CI)=.084, SRMR=.0591)하였다. 이후 구조모형 검증 결과, 연구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양호(χ^2 =222.359, CFI=.946, TLI=.928, RMSEA(90% CI)=.083, SRMR=.0572)했으나, 경로계수의 유의성 검증에서 불안 애착 수준이 가해자 용서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불안 애착에서 가해자 용서로 이어지는 직접 경로의 경로계수를 0으로 설정하여 완전 매개

를 가정한 수정 모형을 제시하였다. 수정 모형 검증 결과, 모든 모형적 합도 지수는 수정 모형보다 우수하여 이를 최종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부트스트래핑 기법으로 매개효과 경로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불안 애착 → 자기 자비→ 가해자 용서 경로에서 간접효과의 부트스트래핑 신뢰구간은 -.421~-.181, 회피 애착 → 자기 자비→ 가해자 용서 경로의 신뢰구간은 -.380~-.174로, 두 경우 모두 신뢰구간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연구 가설 6을 제외한 모든 가설이 검증되었다. 다만 연구 가설 6에서 자기 자비가 불안 애착과 가해자 용서의 관계를 부분 매개할 것이라는 가정과는 달리, 수정 모형 검증 결과 자기 자비가 완전히 매개한다는 설명이 더 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회피 애착과 달리, 불안 애착의 경우 가해자 용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보기 어려움을 의미하며, 또한 불안 애착에게 낮은 자기 자비는 가해자 용서가 어렵게 만드는 더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불안 애착과 회피 애착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앞서 설명한 Brennan과 동료들(1998)의 애착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위협이나 고통에 직면했을 때의 대처 전략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즉, 불안 애착 수준이 높은 경우, 욕구와 불안에 적극적으로 몰입하고 이에 집착하는 과잉활성화 전략을 사용하지만, 회피 애착 수준이 높을 경우, 자신의 욕구나 불안 등을 최대한 회피하고 무시하는 비활성화 전략을 사용한다. 이러한 전략은 애착 대상이 아니라 중요한 대상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Wallin, 2007), 학교폭력 피해 사건 역시 중요한 충격적인 사건(Hirst et al., 2019)이라는 점에서 가해자를 피해자의 중요 대상이라고 상정해볼 수 있다. 즉, 불안 애착은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회피 애착이 하는 것처럼 도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가담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고, 이는 가해자에 대한 높은 분노, 억울함의 호소, 슬픔과 애도 등 다양한 감정을 표현해내는 등, 가해자와 지속적인 연결 및 접촉이 되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용서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대상과 사건에서 멀어지고 회피하지 않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지속적 시도(McCullough et al., 2000)

이며, 그 과정에서 사건 당시에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자연스레 해결되기도 한다(Levine, 2010)고 알려져 있다. 이는 회복적 정의 관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완전히 분리하기보다는 이들이 계속 관계를 맺으며 지속적인 화해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Shapland, 2016)과 유사한 입장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불안 애착은 가해자와 지속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회피 애착보다 자연스럽게 가해자 용서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불안 애착의 경우 가해자 용서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지 않는다는 선행연구(Finkel, 2007)와도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설명은 불안 애착이 가해자 용서로 이어지는 직접 경로가 유의하지 않은 연구 결과를 대변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자비가 용서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일관적이고 강하다고 알려진 만큼(Fahimdanesh et al., 2013; Mansfield et al., 2015; Wibowo & Naini, 2021; 외 다수), 불안 애착임에도 자기 자비 수준이 낮다면 가해자 용서는 여전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는 연구 결과에서 불안 애착이 가해자 용서에 이르는 경로에서 자기 자비의 완전 매개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더 효과적이고 다각적인 지원 및 개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먼저,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현재 국내 학교폭력과 관련된 제도 및 지원은 학교 내에서 일어난 사건과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 피해의 영향은 피해자가 학교를 떠나고 성인이 되어서까지 잔흔이 깊게 남는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성인 역시도 피해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성인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학교폭력 피해자 대한 관점을 확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개입 방향의 전환을 도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응벌적 대응 외에도, 회복적 정의 개념에 입각한 새로운 학교폭력 사건의 대처가 가능하다는 것을 제안한다. 학교폭력 사건이 신고된 이후 완전히 처리되기까지는 진상규명과 처벌까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까지도 이어진다고 알려져 있다(교육부, 2022). 가해자의 처벌에 초점을 맞춘 현

재의 사법적 대처는 가해자에게는 교화의 기회 없는 낙인이 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는 추가적인 가해가 될 수 있고,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나빠지질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대처는 피해자가 피해 사건에서 완전히 회복할 기회를 차단하고, 영구적인 미해결 과제로 남게 되어 외상 경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Ainsworth & Eichberg, 2006). 반면,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가해자 용서 과정은,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잠재적인 관계를 회복하여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가능한 대안적인 대처 방안이 될 수 있다. 학교폭력은 복잡하고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므로, 다양한 관점에서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학교폭력 피해자의 가해자 용서 과정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개입 방안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의 애착 유형을 불안 애착과 회피 애착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이 가해자 용서에 이르는 경로에서 자기 자비의 유의한 매개효과와 함께, 완전 및 불안전 매개라는 점에서 일부 차이도 확인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애착 유형에 따라 용서에 대한 기제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므로, 보다 세부적이고 효과적인 개입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매개 변인으로 탐색한 자기 자비의 경우 검증된 효과적인 개입이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단순히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의 개수보다, 가능한 개입 프로그램 선택의 폭이 크게 확장되었다. 실제로 RCT기반의 자기 자비 개입에 대한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Ferrari et al., 2019), 27개 개입이 안정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기 자비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개입에 대한 메타 분석 연구(Wilson, 2019)에서는 22개의 RCT 개입에 대해 1127명을 대상으로 효과성을 분석하였고, 안정적인 관계를 확인하여 자기 자비 개입이 아니라도 다양한 개입에서 자기 자비가 부수적으로 증진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상담에의 시사점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애착 이론을 경험적으로 검증했다는 데 의미가 깊다. 본 연구에서는 애착 이론에서 강조하는 성찰적 태도와 정신화의 관점에서 자기 자비와 가해자 용서의 기제를 설명하고, 이를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성인

262명을 대상으로 확인했다. 특히, 애착 이론에서 불안 및 회피 애착으로 대표되는 불안정 애착 유형은 성찰적 태도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한 점과 불안 및 회피 애착의 활성화 전략에는 차이가 있다고 한 점(Fonagy, 2018)을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후속 연구에서도 불안정 애착을 불안 및 회피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기도 한다. 또한, 학교폭력 사건에서의 상담의 역할을 대폭 확장할 수 있다. 지금의 학교폭력 사건 처리에서 상담사의 역할은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개별적인 심리상담으로 국한되어 있으나,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다양한 제도와 지원이 가능해진다면 상담사의 역할은 무궁무진하게 확대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 먼저,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더 많았으며, 20대가 전체 연령 분포 중 65.6%를 차지하여 과반이 넘었다. 이러한 점에서 표본이 전체 성인을 대표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 사건의 일어난 시기, 빈도, 유형 및 주관적 영향 정도 등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피해 경험의 대표성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인에 대해 함께 측정하고, 이러한 변인을 통제한 구조모형 검증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둘째, 경험에 대한 측정의 한계로서, 대상자 선별이 엄밀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 경험이 있는 학교폭력 유형에 체크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간단한 기술을 요구했다. 그러나 응답자들이 실제 학교폭력 피해가 존재했는지를 더 엄밀하게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더 엄밀한 피해 경험 척도를 활용하거나, 추가적인 면담 기법 등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가해자 용서 수준을 측정한 가해자 용서 척도의 다소 낮은 신뢰도 지수이다. 용서 척도의 전체 신뢰도 지수는 양호했으나, 하위 문항 꾸러미의 신뢰도 지수는 .6에 근사하여 우수하지는 않았다. 또한, 상관분

석 결과, 용서 및 용서의 문항꾸러미들은 일부 측정 변인 및 하위 요인과 유의하지 않은 상관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는 사용된 가해자 용서 단축형 척도는 10문항으로, 구조모형 분석을 위해 3개의 문항꾸러미를 제작할 때, 각각 3, 3, 4개의 문항으로 문항꾸러미를 구성하였는데, 문항꾸러미 당 저긍 문항을 사용하게 되면서 신뢰도가 낮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단축형 척도의 타당성 검증 과정에서도 전체형 검사보다 다소 낮은 신뢰도를 보고했다는 점(오영희, 2011)에서 척도 자체의 문제로 볼 수도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가해자 용서 수준을 측정할 때 한국판 가해자 용서 척도의 24문항 전체를 사용하거나 신뢰도가 안정적으로 보고되는 대체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마지막으로, 횡단 연구에서의 인과 관계 해석의 문제를 꼽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일회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변인 간 경로의 인과 관계를 이론적으로 설정하고 가정할 수는 있으나, 통계적으로 이를 검증할 수는 없었다. 이에 더해, 학교폭력 피해 사건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에 피해 사건 이후 다양한 추가적인 사건 또는 변인이 개입할 여지가 충분하지만, 학교폭력 피해 경험 여부만을 단편적으로 추정하여 그 이후에 가해자와 일어난 다양한 역동에 대해 고려하지 못한 점 역시 횡단 연구 및 설문지 기법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단 연구 또는 실험 연구를 통해 경로의 인과 관계를 검증하거나, 질적 연구를 통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용서가 어려운 또는 가능한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탐색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강현철. (2013). 구성타당도 평가에 있어서 요인분석의 활용.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3(5), 587-594.

교육부. (2022). 『2022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8-9.

교육부. (2022).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가이드 안내』. 1-2.

교육부. (2022). 『2022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 1-2.

권순동. (2015). SEM 에서 위계모형을 이용한 다중공선성 문제 극복방안 연구: 소셜커머스의 재구매의도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Journal of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22(2), 149-169.

김성현. (2004). **친밀 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확증적 요인분석과 문항 반응 이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김준우. (2007). **즐거운 SPSS, 풀리는 통계학**. 서울: 박영사.

두경희, 김계현, 정여주. (2012). 사이버 폭력 연구의 동향과 과제: 사이버 폭력의 정의 및 유형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3**(4), 1581-1607.

방송통신위원회. (2021). 『2021년 사이버폭력 실태 조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2.

배병렬. (2017). **Amos 24 구조방정식 모델링.** 서울도서출판: 청람.

오영희. (2010). 한국인 용서 척도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1), 1-17.

오영희. (2011). 한국인 용서 척도 단축형의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4), 799-813.

정여주, 신윤정. (2020). 청소년 사이버폭력 가해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3), 1453-1473.

Adie, T., Steindl, S. R., Kirby, J. N., Kane, R. T., & Mazzucchelli, T. G. (2021).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mpassion and depressive symptoms: Avoidance and activation as mediators. *Mindfulness, 12*(7),

1748-1756.

Ainsworth, M. D. S., & Eichberg, C. (2006). Effects on infant-mother attachment of mother' s unresolved loss of an attachment figure, or other traumatic experience. In *Attachment across the life cycle.* pp. 168-192. Routledge.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

Barcaccia, B., Pallini, S., Baiocco, R., Salvati, M., Saliani, A. M., & Schneider, B. H. (2018). Forgiveness and friendship protect adolescent victims of bullying from emotional maladjustment. *Psicothema, 30*(4), 427-433.

Baumeister, R. F., Smart, L., & Boden, J. M. (1996). Relation of threatened egotism to violence and aggression: The dark side of high self-esteem. *Psychological Review, 103,* 5-33.

Boulton, M. J., Trueman, M., & Murray, L. (2008). Associations between peer victimization, fear of future victimization and disrupted concentration on class work among junior school pupil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8*(3), 473-489.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New York: Guilford Press.

Brophy, K., Brähler, E., Hinz, A., Schmidt, S., & Körner, A. (2020). The role of self-compa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60*, 45-52.

Brown, A. L. (2003). I*ntegrating attachment and forgiveness approaches*

in the treatment of prepubescent sexually abusive behavior: Recommendations for treatment strategies. Doctoral dissertation: Regent University.

Brown, B. (1999). *Soul without shame: A guide to liberating yourself from the judge within.* Boston: Shambala.

Browne, M. W., & Cudeck, R. (1992).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1*(2), 230-258.

Damon, W. (1995). *Greater expectations: Overcoming the culture of indulgence in America' s homes and schools.* New York: Free Press.

David-Ferdon, C. & Hertz, M. F. (2007). Electronic Media, Violence, and Adolescent: An Emerging Public Health Problem. *Journal of Adolescence Health, 41,* S1-S5.

Deci, E. L., & Ryan, R. M. (1995). *Human autonomy: The basis for true self-esteem.* In M. H. Kernis (Ed.), Efficacy, agency, and self-esteem (pp. 31-49). New York: Plenum.

DeLara, E. W. (2019). Consequences of childhood bullying on mental health and relationships for young adult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8*(9), 2379-2389.

Du Plessis, M. R., Smeekens, S., Cillessen, A. H., Whittle, S., & Güroğlu, B. (2019). Bullying the brain? Longitudinal links between childhood peer victimization, cortisol, and adolescent brain structure. *Frontiers in psychology, 9*, 2706.

Earnshaw, V. A., Elliott, M. N., Reisner, S. L., Mrug, S., Windle, M., Emery, S. T., ... & Schuster, M. A. (2017). Peer victimization, depressive symptoms, and substance use: A longitudinal analysis. *Pediatrics, 139*(6).

Eduardo Barajas (1997). "Speak Out! Community Justice: Bad Ways of Promoting a Good Idea, *Perspectives, 20*(3).

Enright, R. D., & Coyle, C. T. (1998). *Researching the process model of forgiveness within psychological interventions.* In E. L. Worthington Jr. (Ed.), Dimensions of forgiveness: Psychological research and theological perspectives (pp. 139-161). Philadelphia: Templeton Foundation Press.

Enright, R. D., & Fitzgibbons, R. P. (2000). *Helping clients forgive: An empirical guide for esolving anger and restoring hop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Enright, R. D., Freedman, S., & Rique, J. (199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forgiveness.* In R. D. Enright & J. North (Eds.), Exploring forgiveness, (pp. 46-62). Madison, WI: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Fahimdanesh, F., Noferesti, A., & Tavakol, K. (2020). Self-compassion and forgiveness: Major predictors of marital satisfaction in young couples.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48*(3), 221-234.

Ferrari, M., Hunt, C., Harrysunker, A., Abbott, M. J., Beath, A. P., & Einstein, D. A. (2019). Self-compassion interventions and psychosocial outcomes: A meta-analysis of RCTs. *Mindfulness, 10*(8), 1455-1473.

Finkel, E. J., Burnette, J. L., & Scissors, L. E. (2007). Vengefully ever after: destiny beliefs, state attachment anxiety, and forgiv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5), 871.

Flanagan, K. S., Hoek, K. K. V., Ranter, J. M., & Reich, H. A. (2012). The potential of forgiveness as a response for coping with negative peer experiences. *Journal of Adolescence, 35*(5), 1215-1223.

Fonagy, P., & Luyten, P. (2018). *Attachment, mentalizing, and the self.* 1-33.

Fonagy P., Steele, H., & Steele, M. (1991a). Maternal representations of attachment during pregnancy predict the organization of

infant-mother attachment at one year of age. *Child Development*, *62*, 891-905.

Fonagy, P., Gergeley, G., Jurist, E. J., & Target, M. I. (2002). *Affect regulation, ment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self.* New York: Other Press.

Fonagy, P., Target, M., Steele, H. & Steele, M. (1998). *Reflective-functioning manual, version 5.0, for application to adult attachment interviews.* London: University College London.

Ford, J. K., MacCallum, R. C., & Tait, M. (1986). The application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 applied psychology: A critical review and analysis. *Personnel psychology, 39*(2), 291-314.

Fraley, R. C., Waller, N. G., & Brennan, K. A. (2000).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2), 350-365.

Fredrickson, B. L. (2001). The role of positive emotions in positive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56,* 218-226.

Fromm, E. (1963). *The art of loving*. New York: Bantam Books.

Goldstein, J., & Kornfield, J. (1987). *Seeking the heart of wisdom: The path of insight meditation.* Boston: Shambhala.

Harter, S. (1999).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A developmental perspective.* New York: Guilford Press.

Hawker, D. S., & Boulton, M. J. (2000). Twenty years' research on peer victimization and psychosocial maladjustment: A meta-analytic review of cross-sectional studies. *Th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41*(4), 441-455.

Heinemann P-P. (1972). *Mobbing: Group Violence Among Children and Adult..* Stockholm. 27-150.

Hirst, S. L., Hepper, E. G., & Tenenbaum, H. R. (2019). Attachment

dimensions and forgiveness of others: A meta-analysi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36*(11-12), 3960-3985.

Hughes, D. A. (2003). Psychological interventions for the spectrum of attachment disorders and intrafamilial trauma.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5*(3), 271-277.

Játiva, R., & Cerezo, M. A. (2014). The mediating role of self-compa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victimization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in a sample of adolescents. *Child abuse & neglect, 38*(7), 1180-1190.

Jopling, D. A. (2000). *Self-knowledge and the self.* New York: Routledge.

Karremans, J. C., van Schie, H. T., van Dongen, I., Kappen, G., Mori, G., van As, S., ... & van der Wal, R. C. (2020). Is mindfulness associated with interpersonal forgiveness?. *Emotion, 20*(2), 296.

Kline, R. B. (2011). *Convergen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multilevel modeling*. New York: Guilford Press.

Klomek, A. B., Marrocco, F., Kleinman, M., Schonfeld, I. S., & Gould, M. S. (2008). Peer victimization, depression, and suicidiality in adolescen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8*(2), 166-180.

Lawler-Row, K. A., Younger, J. W., Piferi, R. L., & Jones, W. H. (2006). The role of adult attachment style in forgiveness following an interpersonal offense.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4*(4), 493-502.

Leary, M. R., & Diebels, K. J. (2017). *The hypo-egoic impact of mindfulness on self, identity, and the processing of self-relevant information.* In J. C. Karremans & E. K. Papies (Eds.), Mindfulness in social psychology (pp. 50 -72). New York, NY: Routledge.

Lebois, L. A., Papies, E. K., Gopinath, K., Cabanban, R., Quigley,K. S.,

Krishnamurthy, V.,... Barsalou, L. W. (2015). A shift inperspective: Decentering through mindful attention to imagined stressful events. *Neuropsychologia, 75*, 505-524.

Levine, P. A. (2010). *In an unspoken voice: How the body releases trauma and restores goodness.* North Atlantic Books.

Liu, J., Bullock, A., Coplan, R. J., Chen, X., Li, D., & Zhou, Y. (2018). Developmental cascade models linking peer victimization, depress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Chinese children.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36*(1), 47-63.

Liu, Q. Q., Yang, X. J., Hu, Y. T., & Zhang, C. Y. (2020). Peer victimization, self-compassion, gender and adolescent mobile phone addiction: Unique and interactive effect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18,* 105-397.

MacCallum, R. C., Widaman, K. F., Zhang, S., & Hong, S. (1999). Sample size in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4*(1), 84.

Martin, L. A., Vosvick, M., & Riggs, S. A. (2012). Attachment, forgiveness, and physical health quality of life in HIV+ adults. *AIDS care, 24*(11), 1333-1340.

McCullough, M. E., Pargament, K. I., & Thoresen, C. T. (2000). *The psychology of forgiveness: History, conceptual issues, and overview.* In M. E. McCullough, K. I. Pargament, & C. E. Thoresen (Eds.), Forgivenes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pp. 1-14). New York: Guilford.

McCullough, M. E., & Witvliet, C. V. (2002). *The psychology of forgivenes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2, 446-455.

McDougall, P., & Vaillancourt, T. (2015). Long-term adult outcomes of peer victimizat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Pathways to adjustment and maladjustment. *American Psychologist, 70*(4), 300.

Nakamoto, J., & Schwartz, D. (2010). Is peer victimization associated with academic achievement? A meta-analytic review. *Social development, 19*(2), 221-242.

Nansel, T. R., Haynie, D. L., & Simonsmorton, B. G. (2003). The association of bullying and victimization with middle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Applied School Psychology, 19*(2), 45-61.

Neff, K. D. (2003a).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to measure self-compassion. *Self and Identity, 2*(3), 223-250.

Neff, K. D. (2003b). Self-compassion: An alternative conceptualization of a healthy attitude toward oneself. *Self and identity, 2*(2), 85-101.

Neff, K. (2011). *Self-compassion: The proven power of being kind to yourself.* Hachette UK.

Olweus D. (1978). *Aggression in the Schools. Bullies and Whipping Boys*. Washington, DC: Hemisphere.

Olweus, D. (1993).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Oxford, UK: Blackwell.

Orcan, F. (2013). *Use of item parceling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missing data* Doctoral dissertation, The Florida State University

Pepping, C. A., Davis, P. J., O'Donovan, A., & Pal, J. (2015). Individual differences in self-compassion: The role of attachment and experiences of parenting in childhood. *Self and Identity, 14*(1), 104-117.

Quinlan, E. B., Barker, E. D., Luo, Q., Banaschewski, T., Bokde, A. L., Bromberg, U., ... & Schumann, G. (2020). Peer victimization and its impact on adolescent brai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Molecular psychiatry, 25*(11), 3066-3076.

Quintana-Orts, C., & Rey, L. (2018). Traditional bullying, cyberbullying and mental health in early adolescents: Forgiveness as a protective

factor of peer victimis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 *15*(11), 23-89.

Quintana-Orts, C., Rey, L., & Worthington Jr, E. L. (2021). The relationship between forgiveness, bullying, and cyberbullying in adolescence: a systematic review. Trauma, *Violence, & Abuse, 22*(3), 588-604.

Raque-Bogdan, T. L., Ericson, S. K., Jackson, J., Martin, H. M., & Bryan, N. A. (2011). Attachment and mental and physical health: self-compassion and mattering as mediat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8*(2), 272.

Reed, G. L., & Enright, R. D. (2006). The effects of forgiveness therapy on depression, anxiety, and posttraumatic stress for women after spousal emotional abus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4*(5), 920.

Sakiz, H., & Sariçam, H. (2015). Self-compassion and forgiveness: The protective approach against rejection sensitivity.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and Behavioral Science, 1*(2), 10-21.

Seligman, M. E. (1995). *The optimistic child.* Boston: Houghton Mifflin.

Shapland, J. (2016). Forgiveness and restorative justice: is it necessary? Is it helpful?. *Oxford journal of law and religion, 5*(1), 94-112.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

Skoda, A. M. (2011). *The relation between self-compassion, depression, and forgiveness of other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Dayton.

Sullivan, T. N., Farrell, A. D., & Kliewer, W. (2006). Peer victimization in early adolescence: Association between physical and relational

victimization and drug use, aggression, and delinquent behaviors among urban middle school student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8*(1), 119-137.

Swann Jr, W. B. (1996). *Self-traps: The elusive quest for higher self-esteem*. WH Freeman/Times Books/Henry Holt & Co.

Takaku, S. (2001). The effects of apology and perspective taking on interpersonal forgiveness: A dissonance-attribution model of interpersonal forgivenes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1*, 494-508.

Tokunaga, R. S. (2010). Following you home from school: A critical review and synthesis of research on cyberbullying victimization.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6*, 277-287.

van Geel, M., Goemans, A., Zwaanswijk, W., & Vedder, P. (2021). Does peer victimization predict future suicidal ideation? A meta-analysis on longitudinal studie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01-577.

van Rensburg, E. J., & Raubenheimer, J. (2015). Does forgiveness mediate the impact of school bullying on adolescent mental health?. *Journal of Child & Adolescent Mental Health, 27*(1), 25-39.

Wallin, D. J. (2007). *Attachment in psychotherapy*. Guilford press.

Watson, H., Rapee, R., & Todorov, N. (2017). Forgiveness reduces anger in a school bullying context.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2*(11), 1642-1657.

Wibowo, M. E., & Naini, R. (2021). Self-Compassion and Forgiveness among Senior High School Students: A Correlational and Comparative Study. *Islamic Guidance and Counseling Journal, 4*(1), 91-97.

Wilson, A. C., Mackintosh, K., Power, K., & Chan, S. W. (2019). Effectiveness of self-compassion related therapie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Mindfulness*, *10*(6), 979-995.

Wispe, L. (1991). *The psychology of sympathy.* New York: Plenum.

Wolak, J., Mitchell, K. J., & Finkelhor, D. (2007). Does online harassment constitute bullying? Anexploration of online harassment by known peersand online-only contac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1,* 52-58.

Wu, L., Zhang, D., Su, Z., & Hu, T. (2015). Peer victimization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A meta-analytic review of links to emotional maladjustment. *Clinical pediatrics, 54*(10), 941-955.

Wu, Q., Chi, P., Zeng, X., Lin, X., & Du, H. (2019). Roles of anger and rumin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mpassion and forgiveness. *Mindfulness, 10*(2), 272-278.

Yaghoubi, S., Birashk, B., Aghebati, A., & Ashouri, A. (2021). Mediating Role of External Shame and Self-compa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Victimization and Depression in Adolescents. *Iranian Journal of Psychiatry and Clinical Psychology, 27*(1), 16-31.

Yárnoz Yaben, S. (2009). Forgiveness, attachment, and divorce.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50*(4), 282-294.

Ybarra, M. L., Boyd, D., Korchmaros, J. D., & Oppenheim, J. K. (2012). Defining and measuring cyberbullying within the larger context of bullying victimization.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51,* 53-58.

Zhang, H., Chi, P., Long, H., & Ren, X. (2019). Bullying victimization and depression among left-behind children in rural China: Roles of self-compassion and hope. *Child Abuse & Neglect, 96*, 10-72.

[부록 1] 연구참여자 모집 문건

연구참여자 모집 문건

다음과 같은 연구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연구 과제명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성인의 불안·회피 애착이
가해자 용서에 미치는 영향 :자기 자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연구 책임자명

최다정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 석사과정)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가해자 용서 수준과 성인 애착 유형, 자기 자비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참여자 선정조건 : 본 연구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성인(2003년 및 이전 출생자) 3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성인에 해당하여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받았습니다.

참여 내용 : 만일 귀하가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면 설문지에 온라인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설문지는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설문과 선정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참여자 선정을 위한 설문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 여부를 확인합니다. 교육부 지침에 명시된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의 12가지 종류를 설명한 각 항목에 대해 경험한 바가 있다면 해당 항목의 체크박스에 표기하게 됩니다. 한 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신 경우 본 설문으로 넘어갑니다. 만일 해당 사항이 없다고

응답하신 경우 연구 참여가 중단되며, 어떠한 자료도 수집되지 않으며, 사례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여자 선정 과정의 예상 소요 시간은 2분 이내입니다.

②. ①의 절차를 통해 참여자로 선정되면 본 설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본 설문은 자기 자비, 용서, 성인 애착 유형과 관련된 척도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문 문항은 총 70개로, 설문지 작성을 모두 마치시는 데까지는 약 10분이 소요됩니다. 설문이 종료된 후 최소한의 개인정보(성별, 학력, 나이)와 개인식별정보(전화번호)를 기입합니다. 모든 문항에 성실하게 응답한 경우 수일 내로 사례가 지급됩니다.

참여기간 및 참여 방법

1) **기간** : 본 연구는 1회의 설문 응답으로 참여가 종료됩니다. 동의서 작성, 참여자 선정, 본 설문을 합하여 10분 정도 소요되며, 선정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여 본 설문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소요 시간은 2분 내외로 예상됩니다. 본 설문은 공고 시점부터 2022-12-01까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 **방법** : 아래 온라인 설문 링크(Google 설문)에 개인 기기를 통해 접속합니다.

https://forms.gle/[redacted]

참여 시 사례 : 현금 3000원 상당의 이디야커피 기프티콘

본 연구의 내용에 관한 문의는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하십시오.

이름: 최다정(연구책임자) 전화번호: 010-[redacted]
/ E-mail [redacted]@[redacted]

[부록 2] 연구참여자용 설명문

연구참여자용 설명문(온라인 설문용)

연구 과제명 :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성인의 불안·회피 애착이 가해자 용서에 미치는 영향 :자기 자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연구 책임자명 : 최다정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 석사과정)

이 연구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가해자 용서 수준과 성인 애착 유형, 자기 자비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입니다. 귀하는 성인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소속의 최다정연구원(010-[redacted])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폭력 피해자의 가해자 용서 수준과 성인 애착 유형, 자기 자비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입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현재 성인(2022년 기준 태어난 해가 2003년이거나 그 이전인 사람)인 300명의 사람이 참여할 것입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만일 귀하가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참여 의사를 온라인상에 밝혀 주시면 준비된 설문지에 온라인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설문지는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설문과 선정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본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설문은 개인 기기를 통해 접속하여 진행하게 되며, 1회로 종료됩니다.

①. 참여자 선정을 위해 학교폭력 피해 경험 여부를 확인합니다. 교육부 지침에 명시된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의 12가지 종류를 설명한 각 항목에 대해 경험한 바가 있다면 체크박스에 표기하게 됩니다. 한 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신 경우 본 설문으로 넘어갑니다. 만일 해당 사항이 없다고 응답하신 경우 연구 참여가 중단되며, 어떠한 자료도 수집되지 않으며, 사례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여자 선정 과정의 예상 소요 시간은 2분 이내입니다.

②. ①의 절차를 통해 참여자로 선정되면 본 설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본 설문은 자기 자비, 용서, 성인 애착 유형과 관련된 척도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문 문항은 총 70개로, 설문지 작성을 모두 마치시는 데까지는 약 10분이 소요됩니다. 설문이 종료된 후 최소한의 개인정보(성별, 학력, 나이)와 개인식별정보(전화번호)를 기입합니다. 모든 문항에 성실하게 응답한 경우 수일 내로 사례가 지급됩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본 연구는 횡단 연구로 1회의 설문 응답으로 참여가 종료됩니다. 동의서 작성, 참여자 선정, 본 설문을 합하여 10분 정도 소요되며, 선정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여 본 설문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소요 시간은 2분 내외로 예상됩니다. 본 설문은 공고 시점부터 2022-12-01까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만두는 경우 모아진 자료는 자동으로 기록되지 않으며, 인터넷 창을 닫으시거나 중단하시는 즉시 자동으로 전량 폐기됩니다.

6. 부작용이나 위험 요소는 없습니까?

본 연구는 설문 연구로 진행되기 때문에, 귀하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물리적 위험 요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수집하는 자기자비, 용서, 성인 애착 유형의 경우 긍정적인 요인 또는 중립적인 요인에 해당하여 정서적인 위험 요소도 낮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묻는 문항 또는 기타 일부 문항 때문에 정서적 불편을 느끼신다면 언제든 연구 참여를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연구 참여의 직접적 결과로 정서적 고통이 지속될 시, 연구책임자에게 연락을 취하십시오. 연구책임자는 한국상담학회 또는 한국상담심리학회 2급 자격 이상을 소지한 전문상담사에게 단 회기의 비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것입니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정보들은 학교폭력 피해 경험 이후 성인이 된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장기적인 회복과 성장에 어떠한 개입이 필요한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최다정(010-[redacted])입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성별, 연령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연구책임자에게만 접근이 허락되며, 해당 정보가 포함된 연구자료는 연구책임자만 인지하는 암호로 잠겨 연구책임자의 개인 기기에 안전한 방법으로 보관이 될 것입니다. 동의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을 보관한 후 폐기할 예정이며, 연구자료의 경우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가능한 한 영구 보관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구에 끝까지 참여한 경우 중복 응답 방지 및 사례 지급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전화번호)를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 목적(중복 응답 제거 및 사례 지급)을 달성한 직후 폐기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될 때 귀하의 이름 및 기타 개인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사례가 지급됩니까?

귀하가 모든 연구 참여 절차를 완료했을 경우, 연구 참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현금 3,000원 상당에 해당하는 기프티콘이 지급될 것입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최다정 전화번호: 010-[redacted]

[부록 3] 동의서(온라인 연구참여자용)

동 의 서 (온라인 연구참여자용)

연구 과제명 :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성인의 불안·회피 애착이 가해자 용서에 미치는 영향 :자기 자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연구 책임자명 : 최다정(서울대학교 교육학과, 010-[redacted])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고 이해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법률이 규정한 국가 기관 및 생명윤리위원회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는 아래 체크박스에 대한 표시는 위 내용에 모두 동의함을 간주하고 있음을 압니다.

위 내용을 모두 이해며 이에 동의하는 경우
아래의 체크박스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부록 4] 설문지(온라인 연구참여자용)

*설문지 원본에는 척도 명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학교폭력 피해 경험 유형

다음에 제시되는 내용은 교육부(2022) 「2022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및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가이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의 유형입니다.

가. 다음은 학교폭력의 6가지 유형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피해 경험이 있다면 체크 표시 바랍니다(중복 응답 가능).

① 신체 폭력은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 (유인),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② 언어폭력에는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단,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에 해당),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등이 포함된다. □

③ 금품 갈취(공갈)는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및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

④ 강요의 예시로는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등이 있다. □

⑤ 따돌림은 집단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 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및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일체를 포함한다. □

⑥ 성폭력에는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및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

나. 다음은 사이버폭력의 6가지 유형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피해 경험이 있다면 체크 표시 바랍니다(중복 응답 가능).

①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를 비하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거짓을 말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떨어뜨리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사이버 언어폭력은 채팅방, 게시판 등 사이비 공간에서 문자, 사진, 동영상 등으로 비방글, 악성댓글, 욕설 등을 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

③ 사이버 영상 유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 동의 없이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특정 신체 부위나 각종 유해성 사진, 영상 등을 전송 및 유포하여 괴롭히는 행위를 포함한다. □

④ 사이버 따돌림에는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 상대를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채팅방에서 퇴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

⑤ 사이버 갈취는 사이버머니, 금품갈취형으로 주로 와이파이 셔틀, 게임머니 등 사이버상 갈취 형태의 괴롭힘을 말한다. □

⑥ 사이버 스토킹은 사이버 공간에서 원하지 않는 문자, 사진,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

가해자 용서

각 문항을 주의 깊게 읽고 문항에 대해 다섯 가지 대답 가운데 (가장 영향이 컸다고 기술한 특정한) 학교폭력 피해 경험 당시의 가해자 1명에 대한 현재 자신의 정서, 인지, 행동에 대해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서 체크하십시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3----------4----------5

문항		해당하는 정도
1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남아 있다.	1 2 3 4 5
2	그 사람에게 화가 난다.	1 2 3 4 5
3	그 사람을 봐도 마음이 편안하다.	1 2 3 4 5
4	그 사람을 봐도 아무렇지 않다.	1 2 3 4 5
5	그 일로 인해 사람들을 경계하게 되었다.	1 2 3 4 5
6	그 상처를 잊기 어렵다.	1 2 3 4 5
7	그 사람과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다.	1 2 3 4 5
8	그 사람을 형식적으로 대한다.	1 2 3 4 5
9	그 사람에게 잘 해주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10	그 사람에게 편하게 연락한다.	1 2 3 4 5

자기 자비

여러분은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문항에 기술되어 있는 방식대로 얼마나 자주 행동하는지 아래 다섯 가지 대답 가운데 자신을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서 체크 해주십시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3----------4----------5

문항		해당하는 정도
1	나는 내 자신의 결점과 부족한 부분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비난하는 편이다.	1 2 3 4 5
2	나는 기분이 처질 때, 잘못된 모든 일을 강박적으로 떠올리며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3	나는 상황이 나에게 좋지 않게 돌아갈 때, 그러한 어려움은 모든 사람이 겪는 인생의 한부분이라고 여긴다.	1 2 3 4 5
4	나는 내 부족한 점을 생각하면, 세상과 단절되고 동떨어진 기분이 든다.	1 2 3 4 5
5	나는 마음이 아플 때, 내 자신을 사랑하려고 애를 쓴다.	1 2 3 4 5
6	나는 나에게 중요한 어떤 일에서 실패를 하면, 내 능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에 사로잡힌다.	1 2 3 4 5
7	나는 기분이 축 처지고 마음이 갈팡질팡할 때, 세상에는 나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8	나는 정말로 힘들 때는, 내 자신을 더욱 모질게 대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9	나는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화가 날 때는, 감정의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10	나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면,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부족감을 느낄 거라는 생각을 떠올리려고 애를 쓴다.	1 2 3 4 5
11	나는 내 성격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을 견디거나 참기 어렵다.	1 2 3 4 5
12	나는 정말로 힘든 시기를 겪을 때, 내게 필요한 돌봄과 부드러움으로 나를 대한다.	1 2 3 4 5
13	나는 기분이 쳐져 있을 때,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행복할 거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14	나는 뭔가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 상황에 대해 균형잡힌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 한다.	1 2 3 4 5
15	나는 내가 겪은 실패들에 대해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로 보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16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 나 자신의 어떤 면들을 보면, 스스로를 비난한다.	1 2 3 4 5
17	나는 나에게 중요한 어떤 일에서 실패하면, 그 상황을 가급적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려고 한다.	1 2 3 4 5
18	내가 정말로 힘들게 애를 쓰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틀림없이 나보다 더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있을 거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19	나는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나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1 2 3 4 5
20	나는 어떤 일로 기분이 상하거나 화가 날 때, 내 감정에 휩싸이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21	나는 고통을 겪을 때는 나 자신에게 약간 냉담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22	나는 기분이 처질 때면 호기심과 열린 마음을 갖고 내 감정에 다가가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23	나는 내 자신의 결점과 부족함에 대해 관대하다	1 2 3 4 5
24	나는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 일을 크게 부풀려서(확대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25	나는 중요한 어떤 일에서 실패하면, 나 혼자만 실패한 기분이 든다.	1 2 3 4 5
26	내 성격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이해하고 견디어내려고 한다.	1 2 3 4 5

성인애착유형

이 검사지의 문항들은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경험하는 느낌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검사는 여러분들이 대인관계에서 보편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는가에 대해 알고자 합니다. 각 문항을 주의 깊게 읽고 자신의 생각에 비추어 가장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번호에 체크하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문항		해당하는 정도
1	다른 사람들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 편이다.	1 2 3 4 5 6 7
2	때로 다른 사람들은 분명한 이유 없이 나에 대한 그들의 감정을 바꾸곤 한다.	1 2 3 4 5 6 7
3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은 비교적 쉽다.	1 2 3 4 5 6 7
4	다른 사람들이 내게 가까워지려고 하면 불편하다.	1 2 3 4 5 6 7
5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한다.	1 2 3 4 5 6 7
6	다른 사람들은 내가 화나 있을 때만 나에게 주목하는 것 같다.	1 2 3 4 5 6 7
7	다른 사람들은 나와 내 욕구를 잘 이해한다.	1 2 3 4 5 6 7
8	버림 받을까봐 걱정하는 일은 별로 없다.	1 2 3 4 5 6 7
9	다른 사람들과 여러 가지에 대해 의논한다.	1 2 3 4 5 6 7

10	내가 다른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 만큼, 그들도 내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봐 걱정한다.	1 2 3 4 5 6 7
11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마음 속 깊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는 편이다.	1 2 3 4 5 6 7
12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못 미칠까봐 걱정된다.	1 2 3 4 5 6 7
13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얻고자 하는 애정과 지지를 보내주지 않을 때는 화가 난다.	1 2 3 4 5 6 7
14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표현했을 때, 그들이 나에 대해 같은 감정이 아닐까봐 걱정된다.	1 2 3 4 5 6 7
15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을까봐 자주 걱정한다.	1 2 3 4 5 6 7
16	다른 사람들에게 속내를 털어놓는 것이 편하지 않다.	1 2 3 4 5 6 7
17	다른 사람들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회의를 하게 만든다.	1 2 3 4 5 6 7
18	필요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1 2 3 4 5 6 7
19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어렵다.	1 2 3 4 5 6 7
20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갖는 호감만큼 그들도 내게 강한 호감을 가지기를 자주 원한다.	1 2 3 4 5 6 7
21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 대해 걱정이 많다.	1 2 3 4 5 6 7
22	매우 가까워지고 싶은 나의 욕구 때문에 사람들이 내게서 멀어지기도 한다.	1 2 3 4 5 6 7

23	다른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봐 걱정하는 일은 거의 없다.	1 2 3 4 5 6 7
24	다른 사람들은 내가 바라는 만큼 나와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는다.	1 2 3 4 5 6 7
25	다른 사람들이 잠시 떠나 있으면 그들이 나 아닌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게 될까봐 걱정한다.	1 2 3 4 5 6 7
26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잃을까 두렵다.	1 2 3 4 5 6 7
27	다른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는 것이 매우 편하다.	1 2 3 4 5 6 7
28	다른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1 2 3 4 5 6 7
29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것이 편하게 느껴진다.	1 2 3 4 5 6 7
30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1 2 3 4 5 6 7
31	다른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을까봐 자주 걱정한다.	1 2 3 4 5 6 7
32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은 어렵지 않다.	1 2 3 4 5 6 7
33	내 문제나 걱정거리를 보통 다른 사람들과 의논한다.	1 2 3 4 5 6 7
34	사적인 생각과 감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에 대해 편안하게 느낀다.	1 2 3 4 5 6 7
35	다른 사람들이 내게 너무 가까워지려고 하면 불안하다.	1 2 3 4 5 6 7
36	일단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알게 되면, 그들이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좋아하지 않을까봐 두렵다.	1 2 3 4 5 6 7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Style, Forgiveness and Self-compassion among Adults with School Bullying Experiences

Name DAJUNG CHOI
Department of Education(Education Counsel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presented a restorative justice perspective as a new alternative to coping with school bullying cases, and focused on forgiveness in that it has various advantages for victims of school violence. Accordingly, based on the attachment theory, it was assumed that the level of anxiety attachment and avoidance attachment negatively affects the forgiveness toward offender, and self-compassion will mediate this path. This study was conducted on 262 adult men and women with school violence experience to determine whether self-compassion respectively mediates the negative effects of anxiety attachment and avoidance attachment levels on forgiveness toward offenders. The average

age of the study participants was 27.27 years old, 185 women (70.6%), and 75 men (28.6%) were found to have experienced multiple responses, followed by 140 verbal violence, 126 bullying, and 77 cyber violence.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of major variables were reported.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the validity of the measurement model was verified by conducting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 of the structural model verification showed that the fitness index of the competitive model was acceptable, but the direct effect of the anxiety attachment level on the forgiveness toward offender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path coefficient verification. On the other hand, all the models' goodness of fit of modified model were found to be superior to the competitive model. Thus, modified models were selected as the final. Finally, the significance of the two mediating effect paths was confirmed by the bootstrapping technique.

As a result, we verified that self-compassion was completely media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attachment and forgiveness. On the other hand, self-compassion was partially mediated in the case of avoidance attachment.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the diversification of targets, directions, and interventions to handle school violence damage. In addition, this paper which empirically verifying the attachment theory, provides practical implications to expand the role of counseling in coping with school violence cases.

keywords : School bullying, restorative justice, forgiveness, anxiety attachment, avoidance attachment, self-compassion

Student Number : 2021- 20848